Vol. 15 | 2021 AUTUMN

메타버스 매거진

Zoom In Focus

잘 자야 좋은 교사다
메타버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자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Class Know-How

〈학교 가자〉 노래 부르더니 진짜 '가상학교' 만들어
'초등 교과서 검정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Hot EduTech

메타버스, 학생 주도형 온라인 학습의 새로운 열쇠

Interview & People

세상의 모든 놀이를 소개하는 우리는 '놀밥'입니다
"'미소'로 월급 받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요"

Teacher Life

"같지만 다른 그림이 민화의 매력입니다"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1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IOM

"저희 방금 체육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되나요. "

"좋아. 그럼 딱 p.186까지만 하고 쉬자!"

"아아아아 싫어요~~"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억지로

수업을 하다, 체육시간은 왜 힘들었는지 물어본다.

신나서 이야기하는 아이들.

한 시간 정돈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보내본다.

코로나가 뭔지… 가끔 등교하여 얼굴 볼 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는데,

하나라도 더 들어주는 게 필요한 아이들이다.

사진. 강지현 석우중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석우중학교 체육관

CONTENTS

Vol.15 | 2021 AUTUMN

발행처 테크빌교육㈜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1년 9월 18일 통권 제15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e.com

디자인·인쇄 ㈜태산애드컴
T. 02-2268-2488

Zoom in Focus

06 잘 자야 좋은 교사다 • 김경일

08 메타버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자 • 박기현

10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 이임복

Class Know-How

14 〈학교 가자〉 노래 부르더니 진짜 '가상학교' 만들어 • 이제창

18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 왕건환

22 협력 수업으로 마음의 근력까지 키우는 '러닝커먼스 도서관' • 정영주

26 '초등 교과서 검정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심준보·정도행·조기성

Hot EduTech

30 메타버스, 학생 주도형 온라인 학습의 새로운 열쇠 • 이상경

Interview & People

34 세상의 모든 놀이를 소개하는 우리는 '놀밥'입니다 • 안채원, 임재성, 이우경, 신행훈

38 “‘미소’로 월급받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요”
• 옥효진

42 [학교 탐방] 특성화고와 사랑에 빠진 예술학도, 나의 사랑 목포중앙고
• 김 웅

Teacherville News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48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교육과의 접목은 티처빌에서 • 김지혜

52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54 신규과정

Teacher Life

56 낮에는 선생님, 저녁에는 파티시에
• 정혜영

60 “같지만 다른 그림이 민화의 매력입니다”
• 김나현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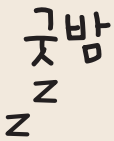
64 뉴 이퀄리브리엄/
초임교사 신호등/
자존감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Cartoon

66 학교에 간 서니쌤 • 정은선

잘 자야 좋은 교사다

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선생님,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국내 최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에 따르면 '잘 자야 좋은 교사'라고 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요. 잘 자는 것과 좋은 교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시절 유난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좋아한 그런 분이셨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여행담, 혹은 친구분들과 있었던 배꼽 잡는 에피소드 등을 담담하면서도 소박한 어조로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중 꽤 많은 친구는 그 선생님을 통해 세상과 어른들의 담백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재미를 느꼈다.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유 없는 짜증 역시 가감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 짜증 섞인 행동 중에는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손톱 물어뜯기도 있었다.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손톱 물어뜯기를 하니 발음은 엇나가고 어색해지기 일쑤였다. 학생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다리를 떠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마치 우리 또래 아이들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실 때도 있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정신이 사나워져서,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그 행동 자체가 눈에 거슬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필자의 집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셨기에 졸업 후에도 가끔 그 선생님을 동네에서 마주쳤고, 인사를 드리곤 했다. 대학원 다닐 때 즈음으로 기억된다. 우동 한 그릇을 먹으려고 동네의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선생님께서도 홀로 소주 한잔하고 계셨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라고 인

사를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술친구나 하자며 옆에 앉으라고 하셔서 두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심리학과에 다닌다고 하자 대뜸 이런 질문을 하셨다. "경일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모르면 좀 찾아보고 알려줘라." 꽤 취하신 선생님께서는 아직 그 대답을 할 한만 지식도 전혀 없는 제자에게 당신께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셨던 수면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자에게 풀어놓은 것이다. 물론 그날의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이제는 그 답을 꽤 알고 있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저자로 세계적인 석학인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심리학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필자도 공부했으니 말이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그다음 날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상식적인 것은 졸음과 피곤함이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기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지원자는 다음날 면접 장소에 들어가 앉자마자 면접관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잠이 많이 부족한 기업인이 기자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후비는 경우도 있다. 상견례 전날 거의 잠을 못 잔 남자가 다음날 약혼녀의 부모 앞에서 육두문자가 불쑥 튀어나오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 그들의 습관이다. 혼자 있을 때 나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포장마차에서 그 선생님께서 취중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 중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바로, "나도 안다. 내가 수업 중에 손톱 깨물고 다리 떤다고 너희들이 뒤에서 흉본 거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신경을 써도 잘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 허허허." 은퇴를 앞둔 그 선생님께도 적지 않은 상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에 수십 명의 학생을 마주해야 하는 교사의 책무이자 직업윤리 중 하나가 바로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얼리 버드(Early Bird)로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너무 강하게 지닌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에 걸쳐 잠이 부족한 분이 되셨던 것 같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4시간만 잔 나폴레옹을 결코 찬양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년에 자충수를 거듭한 이유로 누적된 수면 부족을 꼬집는 경우가 더 많다. 잠만 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나라에는 특히 잠이 부족해 보이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만성적인 수면장애에서부터 잠을 죄악시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심리학자의 눈으로는 아무리 연구해 보고 보고서를 검토해도 교사가 잘 자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를 한 심리학자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께서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요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70대에. 참 매력 있는 선생님이셨는데 말이다. Ⓣ

약력 김경일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 前 중앙심리부검센터장

메타버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자

글.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

메타버스를 '로블록스'나 '제페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매체에서 메타버스의 예로 들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메타버스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보다 광범위하다. 기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인문학·철학적 개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연 화두인 메타버스, 아직 개념이나 추진 방향도 모호

요즘 여러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단연 화두이다. 하루에도 여러 건씩 메타버스에 관한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내용이 모두 비슷비슷하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이 쓴 『스노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나온 용어이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이야기, '세컨드 라이프'에서 시작해 '제페토', '로블록스'까지의 이야기들, 메타버스의 4가지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의 총아이고 차세대 플랫폼이며 새로운 대세, 차세대 먹거리, 스마트폰 다음 세대를 이끌 플랫폼, 인류의 신대륙, 메타버스로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덧붙는다. 끝엔 트렌드 변화를 넘은 신세계라는 언급과 함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통의 글들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정작 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비슷하게 메타라는 접두어가 쓰인 용어로 '메타인지'가 있는데, 인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는 말로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메타인지이다. 비슷하게 개념을 적용해보면, 메타버스는 세계(verse)들의 세계(verse)를 말한다. 즉 현실세계(Real-verse)와 가상세계(Virtual-verse)가 서로 연결되고 교류하는 새로운 세계(Metaverse)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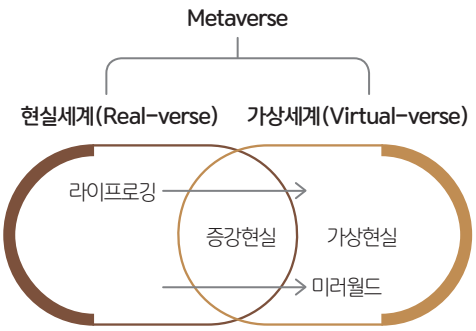
메타버스의 4가지 시나리오, 가상세계·증강현실·미러월드·라이프로깅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메타버스의 4가지 시나리오에는 가상세계·증강현

실·미러월드·라이프로깅이 있다.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습득력을 증대시키고 강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미러월드는 현실세계를 (거의) 그대로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개념이다. 라이프로깅은 현실세계의 삶을 가상세계(온라인)에 기록하는 것으로 삶의 디지타이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4가지 시나리오에서 빠진 현실세계를 추가한 개념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형태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 운동한 궤적을 기록하는 것처럼 다양한 IoT 장비를 활용해 자동으로 삶을 기록할 수도 있다. 라이프로깅(Life logging)을 메타버스의 한 형태로 보는데, 생활의 기록이 개인적인 일정표나 일기와 같은 형태를 넘어 외부에 공개될 때 조금 잘 보이기 위해 살짝 꾸미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의 나와는 다른 가상의 자아를 만들게 되는 메타버스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다른 나를 꾸미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4가지 시나리오는 2007년에 발간된 기술 보고서에 나온 것인데, 이 시나리오에 빠진 것이 있다. 바로 현실세계이다. 현실세계를 추가해 메타버스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된다.



가상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하는 가상공간의 융합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로 통합된 실체, 즉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는 없다.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하는 가상공간의 융합이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한 부분을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부분이 전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메타버스는 포괄적 개념으로 기술적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인문학·철학적 개념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코끼리의 코·다리·꼬리 등도 코끼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코끼리 한 마리 전체를 코끼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개별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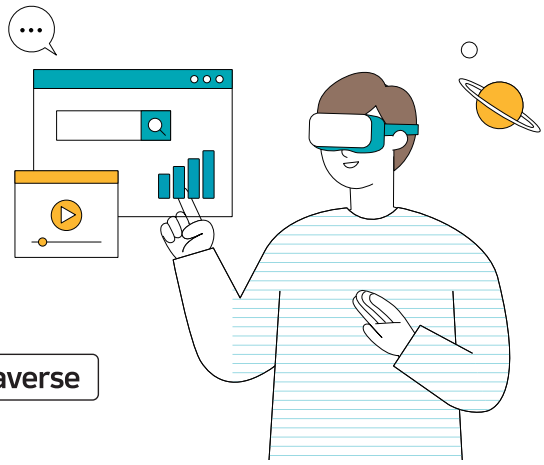
약력 박기현

•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의 전망과 교육적 적용 과제

글. 이임복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



META + UNIVERSE Metaverse

얼마 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페이스북을 5년 내 '메타버스'(Metavers)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사원 연수나 일상적인 회의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 과연 메타버스는 한순간의 거품일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일까? 거기에 교육과의 접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해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2021)의 저자 이임복 작가에게 메타버스의 전망과 교육적 적용에 관해 물어봤다.

세계를 덮친 메타버스 열풍, 메타버스가 뭐길래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을 장식하는 용어 중 하나가 '메타버스'다. 가수 선미는 메타버스를 통해 컴백쇼를 열었고, 엘지그룹·금호석유화학그룹 등의 대기업은 메타버스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고, 심지어 건국대·숭실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렇게 이슈인 걸까?

메타버스는 메타(Meta)+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초월적인 세상, 현실 그 이상의 세계를 의미한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1992년 『스노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특수한 고글을 쓰고, 이어폰을 착용하면 몸은 현실에 있지만, 또 하나의 현실에 자신의 아바타로 로그인해 생활할 수 있는 가상현

실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본래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세계를 의미했다. 다만 누구나 자신만의 VR 기기와 슈트를 입고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는 올 세상이지만 기술적으로 아직은 먼 이야기다.

메타버스, 한순간의 유행일까 아니면 미래일까

그렇다면 지금의 메타버스 열풍은 거품이 아닐까?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로블록스'와 '제페토'이다. 로블록스는 3월 미국 시장에 상장했고, 제페토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나 되는 사용자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VR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어찌 된 일일까? 메타버스의 시작은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굳이 VR을 통해 접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PC·게임기 등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게임들 모두가 가상세계로 메타버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눈앞의 스크린은 눈앞의 현실로, 손가락을 통한 컨트롤러의 조작은 자신의 손을 움직이는 걸로 바뀌겠지만 그전까지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소셜 게임들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임은 메타버스인 걸까

모든 게임이 메타버스는 아니다. 메타버스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들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으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라는 장터에서 누구나 자신의 앱을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는 '자유도·소셜(만남)·수익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갖출 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목받는 메타버스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미 갖추었거나 갖추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으로만 인식되는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가 주목받는 건 게임을 할 뿐 아니라 원한다면 게임과 아이템을 만들어 누구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아바타 활용한 수업 가능

사실 교육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해왔다. 지금에서야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재정의됐고, 덕분에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메타버스에서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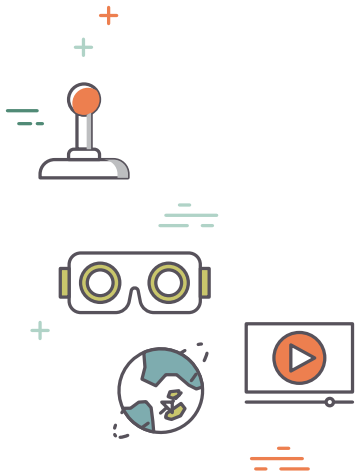
약력 이임복

-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
- 인터렉티브북스 대표
-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 저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2021), 『돈이 되는 IT 트렌드』(2021), 『된다 된다 ZOOM』 외 다수

육이 주는 긍정적인 점을 생각해보자.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 제페토·이프랜드(ifland)·마인크래프트·로블록스와 같은 서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마음껏 꾸며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실제로 예쁘고, 잘 생겼는지, 힘이 센지, 약한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아바타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현금'에 따라 외향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이런 또 다른 활동이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해결은 쉽다.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나눠주는 교복을 입거나 아바타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주면 된다. 현실세계와 같다.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은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17)의 원작 소설을 보면 소설 속 주인공이 학교에 갔을 때 다른 학생이 거친 말을 한다. 이때 주인공은 버튼 하나를 눌러 음소거를 해버린다. 아무리 상대 학생이 화가 나더라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서로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현실세계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기에 더 이상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인사혁신처 장애인 선후배 공무원들이 아바타를 통해 만난 건 메타버스를 통한 만남과 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인사혁신처에서 사용한 메타버스는 '게더타운'으로 참여자들의 얼굴을 화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게더타운은 아바타를 활용할 수 있고, 아바타끼리 서로 만나야만 Zoom처럼 카메라와 마이크가 켜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줌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학교에서는 화상 원격회의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고, OX 퀴즈·방 탈출 등 다양한 미션을 만들어 강의 외에 아이



> 메타버스는
> 우리들의 세상이
> 아닌 이미 그들이
> 살아가고 있는
>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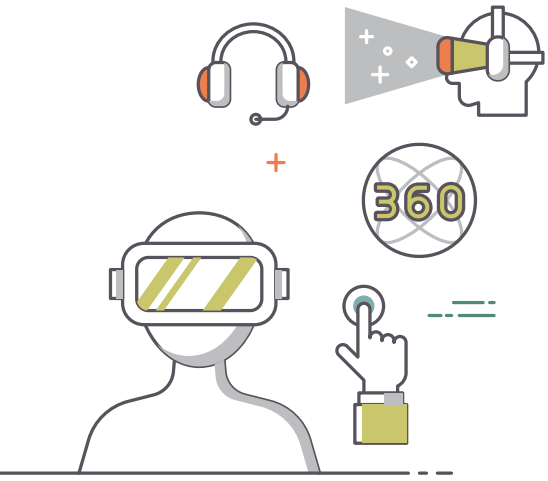
들의 협업과 놀이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통한 만남에 나쁜 점은 없을까

메타버스의 첫 번째 문제점은 아바타를 통한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을 읽고, 손짓이나 몸짓의 신호를 읽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아바타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섬세한 표정보다 하트를 날리거나 웃는 등 아바타의 동작으로만 표현할 수 있기에 오해가 생기기 쉽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실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왕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하는 일도 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기 행위나 계정 해킹의 위험성 등 다양한 보안 문제도 존재한다.

메타버스는 교육에 있어 꼭 막아야 하는 서비스일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메타버스 용어의 시작은 1992년이다. 메타버스가 거품이 아닌 이유는 지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발전해온 인공지능, 네트워크, 대용량 서버, 빅데이터, AR과 VR 등 다양한 기술이 하나가 돼 나타난 현상을 정의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의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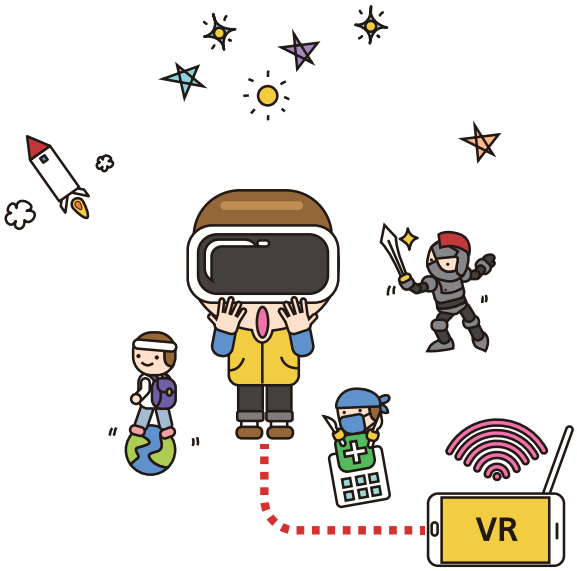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하다. 교육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인지, 지식의 전달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돼야 한다. 그 후 그에 맞는 플랫폼을 활용하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자. 메타버스는 우리들의 세상이 아닌 이미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선생님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자. 이미 코로나19로 1년간 원격 강의에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적응한 분들이 아니던가.

지금 당장 제페토를 설치해 경주로 놀러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 당장 게더타운 속에서 회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 메타버스는 이미 시작된 미래다. 놓치지 말자.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다. Ⓣ

'중등.학교가자.com',
〈학교 가자〉 노래 부르더니 진짜 '가상학교' 만들어

글. 이제창 영남공업고등학교 선생님



교육도 메타버스에 올라탈 수 있을까? '중등.학교가자.com'이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도입해 올여름 진행한 여름캠프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여름캠프를 주도한 이제창 선생님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지만, '평면적인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한 점은 특별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을 맞이한 중학생 쌤구. 여름방학은 휴식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지난 학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학력 격차를 극복하려면 이번 방학은 마냥 휴식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터, 비장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쌤구,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더니 게임 속 캐릭터를 이리저리 조종한다. 공부한다더니 게임을 하는 것일까? 게임 속 아이템에 숨겨진 콘텐츠를 들여다보고는 퀴즈게임 같은 것을 하더니, 게임에서 만난 캐릭터와 30분간 대화를 하고는 공부가 끝났다며 밖으로 나간다.

'학교가자.com',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가상학교'를 만들다

쌤구는 지금 게임을 한 것일까, 공부를 한 것일까? 게임을 한 것 같지만 분명 쌤구는 공부를 했다.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학교에 등교해 아바타 선생님을 만나 과제를 풀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미래 학교에서나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것은 미래 학교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

약력 이제창

- 영남공업고등학교 국어교사
- '중등.학교가자.com' 총괄/기획
- Google Educator Group 대구 운영진
-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듀테크/수업-평가/독서인문교육 지원교사
- 저서 『선생님이 뭔데요?』, 『우리는 학생기자다: 사람책으로 만든 사람책』,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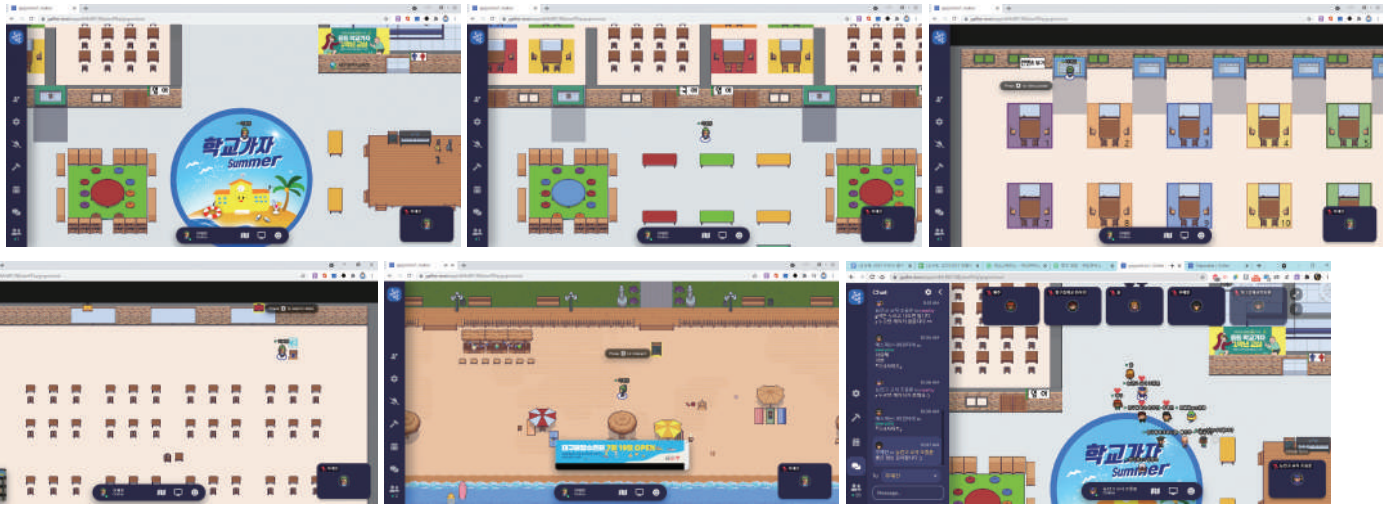
부터 8월 6일까지 운영된 '중등.학교가자.com'에서 실제로 벌어진 장면들이다. '중등.학교가자.com'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당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우려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화제가 된 '학교가자.com'의 중등용 학습 사이트다. 본격적인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극복하고자 '이번 학기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방학마다 묵묵히 제 역할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만들어 돌아왔다. 〈학교 가자, 학교 가자〉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가상학교를 만들어 버렸다.

게임같이 쉬운 조작법… 의사소통도 쉽게 화상채팅

메타버스 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상학교에서 활동할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하는 일이다. 아바타의 이름·외모·복장·머리카락 색 등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 아바타를 생성하면 가상학교의 '중앙현관 앞'으로 이동하는데, 앞에 펼쳐진 운동장은 꿈에도 그리던 잔디 구장이다. 함께 등교한 친구들과 채팅으로 인사를 나눠본다. 조작법은 간단하다. 키보드 방향키로 아바타를 조종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춤을 추거나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 조작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평소 컴퓨터 게임을 즐겨한 아이라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가상학교 내에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화상 대화'이다. 아바타 간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다만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통해 공간 전체 접속자에게 목소리가 전달되게 할 수 있다. 특정 접속자와 채팅도 가능하다.

'중등.학교가자.com' 가상학교.

지금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중등.학교가자.com' 가상학교.

실제 학교를 옮겨놓은 듯한 메타버스 가상학교

학교 안으로 들어서면 오늘 공부할 학습 시간표 애니메이션이 제시된다. 오늘 공부할 과목은 사회와 국어. 해당 학년의 교과 교실로 이동해 요일에 맞는 학습콘텐츠를 확인하고 친구들,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공부하면 된다. 가상학교의 구조는 실제 학교와 매우 흡사하다. 보건실과 행정실, 교장실도 있다. 보건실에는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가, 교장실에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명록이 있다. 보건실의 맞은편에는 개방형으로 마련된 미래형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구교육청의 학생 저자 출판 도서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전자책을 대출할 수도 있다.

위클래스 상담, 피아노 연주도 할 수 있어

위클래스도 마련돼 있다. 위클래스 또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실제 1338 청소년 상담 사이트와 연결돼 전문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로비와 복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게공간과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 무대에서는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있는데 로고송 경진대회가 함께 열리고 있어 흥미를 더한다.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 상상메이커실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매점과 휴게실도 있다. 이곳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가상학교를 탐험하는 재미를 높이기 위해 보물찾기 이벤트도 열리고 있다. 교문 밖으로 나가면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이 있다. 이곳에는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운다.

'줌 피로증' 끝! 강의식 수업도, 협동학습도 실제 수업 상황과 유사하게

학년 층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의 교과 교실들이 복식으로 나열돼 있다. 교실 안은 강의 공간과 협동학습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강의 공간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협동학습 공간에서는 협동학습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 강의 공간은 스포트라이트돼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어 강의 중에 다른 학생들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으며, 줌처럼 강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판서하며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줌 피로증'이라 일컬어지는 다른 사람의 시선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교실 내 빔프로젝터에 디딤 영상을 넣어두면 거꾸로 교실을 운영하기에도 좋다. 협동학습 공간에 들어서면 아바타가 들어서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둡게 변한다. 이렇게 프라이빗룸에서의 대화는 외부에서 들리지 않아 학생들끼리 편하게 협동학습을 할 수 있다. 줌보다 직관적이라 줌의 소회의실보다 편하고 그래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토론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타이핑과 그리기가 모두 가능한 공유 칠판이 있어 협동학습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선생님은 일일이 조를 다니지 않아도 활동 점검용 선생님 발판을 활용해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다. 교실 내 게시판에는 학습콘텐츠와 학습 과제를 담아 놓았다. 대화형 프레젠테이션 플랫폼인 페어덱과 니어팟의 학생주도 모드를 활용해 만들어 놓은 학습콘텐츠들은 VR·패들렛·지오지브라·띵커벨·퀴즈앤 등과 결합하며 학습 효과를 배가했다.

메타버스 가상학교, 미래 교육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길

'중등.학교가자.com' 여름캠프는 기간 내 일일 최대 4,800명, 일일 평균 3,000명의 학생이 이용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다만 메타버스 가상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학습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이트와 가상학교로 이원화해 운영한 점, 모바일에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은 점, 가상학교에 접속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느린 이동 속도, 게임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평면적인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한 점은 매우 특별한 성과로 기록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은 학생의 주도성을 기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불특정의 선생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중등.학교가자.com'의 특별한 시도가 미래 교육을 향한 작은 징검다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글. 왕건환 경기고등학교 선생님

교권 침해는 변이 바이러스처럼 나날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침해 방식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이 생겼다 싶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선생님들을 돌파 감염처럼 괴롭히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교권 침해도 기본을 숙지하고 노하우를 공유·대비한다면, 백신을 맞은 것처럼 중증으로 가는 건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생님이 고통받고 있고, 수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도 축적돼 있다. 나름의 대처법이 정리돼 있어 공유한다.

원격수업 교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교사노조연맹에서 지난 1학기 개학 직전 실시한 '온라인 수업 중 초상권(인격권) 침해 현황에 대한 긴급 교사 설문조사'(8,435명 참여) 결과, 교사 중 92.9%가 원격수업에서 침해 우려를 나타냈고, 7.7%(651명)가 원격수업 중 초상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가 686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는 418건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1건이나 있었다. 이후로 실시간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5월 3일 공개한 전교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월 15

일부터 27까지 설문에 참여한 유·초·중 교사 1,341명 가운데 738명(55.2%)이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10건 가운데 7건은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였다고 한다.[1]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단톡방에 돌려 보며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 지역 맘카페에 올리는 사례 등이 많았다. 수업 중인 교사 사진에 낙서해 게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캡처해 자신의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는 사례, 담임교사의 전화번호와 함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교사 사진을 올려놓은 사례,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성적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속옷만 입고 수업을 듣는 경우, 딥페이크로 선생님의 사진을 야한 사진과 합성해 올리는 경우, 학교 교사 사진이 도용돼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 등이 보고됐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이러스의 확산처럼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이렇게 대응하자

1) 관련 화면을 우선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다

윈도 캡처 프로그램 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다. 문제 있는 부분뿐 아니라 전체와 앞뒤 맥락, 시간, 참여자, 올린 사람 등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캡처한다. 학교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확실해야 위원회 진행 및 징계, 이후 교육에 효과적이다. 캡처를 놓쳤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전후 맥락 및 목격자까지 상세히 기록한다. 목격자의 기억은 왜곡되기 쉬우니, 교권 담당 교사에게 신고 후 가해 학생 또는 목격한 학생들에게 빨리 구체적인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2)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학생들 앞에서 섣부른 대응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실 안에서도 말을 아끼고 시간을 두고 지도하는 게 좋듯이, 즉각 대응하다가 실수하면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선생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미숙하고,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일이며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의 성장을 도와줘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는(http://forteacher.kedi.re.kr)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선생님들께 무료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0회기 정도의 전문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마음에 어려움

1)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3677.html#csidx6b28f43f7d85833b234d45545d6347d

약력 왕건환

- 교사노조연맹·서울교사노조 교권보호팀장
- 경기고등학교 진로정보부장
- 교육커뮤니티 돌봄치유교실 운영진
- 저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교사119 이럴 땐 이렇게』(티처빌 연수),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티처빌 연수),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등 다수

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자료실에는 교육부 매뉴얼과 교권 침해 예방 교육 동영상 등 유용한 자료들이 비치돼 있다. 또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선생님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니, 부담 없이 문의할 수 있다. 교육청 문의가 정 부담스럽다면 소속 교원단체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해볼 수도 있다.

3)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챙기고 치유하자

선생님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한 마음이 지속되는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눈물과 울음이 장기간 멈추지 않고 호흡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땐 바로 정신의학과를 찾아 약물 처방을 받는 게 좋을 수 있다. 시도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교권 침해에 의한 통상적인 정신과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도 한다.

4)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면, 특별휴가를 사용하자

교권 침해로 인한 것이면 연가나 병가가 아닌 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나이스 복무 사항에서 '특별휴가'로 한 번에 5일, 여러 가지 침해를 당한다면 1년에 횟수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 학생 징계 조치(전 학년)와 법원 통고(만 10세 이상) 형사고발(만 14세 이상 또는 학부모 등 성인)을 검토하자

익명으로 올라온 내용이 심각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대면에 비해 손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하다. 사이버수사대에서 IP 추적을 해주기도 하지만, n번방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를 수사하기에도 경찰 인력이 부족해 교권 침해 수준에 따라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징계를 진행하고, 너무 심각한 수준이면 법원 통고나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형사고발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려는 관리자와 관할청은 법률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교원지위법 제15조). Ⓣ

티처빌

모바일 앱 전용 이벤트

APP ON 혜택 ON

티처빌 APP과 함께하면 혜택도 ON!
나에게 딱 맞는 혜택ON을 찾아보세요!

누구나 APP 신규가입 혜택 ON!

APP으로 신규가입시 앱 전용 20% 할인쿠폰 즉시 증정!

STEP1. 플레이스토어에서 '티처빌' 검색 후 앱 설치

STEP2. 티처빌 앱에서 신규 회원가입

STEP3. 전체메뉴 > 쿠폰 > 쿠폰함에서 확인

APP 신규가입 GO >

APP 푸시로 시크릿 혜택 ON!

APP 푸시 수신동의 하신 회원분들에게만 깜짝 찾아오는 **APP 푸시 전용 시크릿 이벤트**

이벤트 대상	앱푸시 정보 광고 Push 수신동의 회원 대상
이벤트 기간	매달 1 – 2회 게릴라 진행
이벤트 경품	이벤트별 상이

APP 푸시 설정 GO >

한 눈에 보는 티처빌 APP 가이드

앱 위젯연동
앱 위젯만 있으면
수강 중인 연수를 바로 재생!

영상 팝업모드
학습 중 다른 앱을 사용해도
팝업 모드로 그대로 재생!

수강 중 화면 조정 / 학습진도 확인
배속 / 크기 / 화면잠금을
원하는대로

앱 푸시 알람
나에게 꼭 맞는 맞춤연수와
쿠폰 / 이벤트혜택을
가장 빠르게

가이드 한 눈에 보기 >

협력 수업으로 마음의 근력까지 키우는 '러닝커먼스 도서관'

글. 정영주 은가람중학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어진 자료를 습득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정보와 사람이 만나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러닝커먼스(Learning Commons)로 탈바꿈하고 있다. 은가람중학교 도서관은 러닝커먼스의 대표적 사례다. '배움이 즐거운 도서관 협력 수업'으로 전교생이 고루 도서관에 와서 책을 활용해 탐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책함성 마음약국'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0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받았다. 정영주 사서교사를 통해 은가람중학교의 도서관을 만나보자.

Chapter 1 배움이 즐거운 도서관 협력 수업

교육과정을 연계한 도서관 협력 수업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늘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평소 생각해왔던 것이 교육과정 연계 도서관 협력 수업이었다. 교과 연계 독서는 목표가 뚜렷해 동기부여가 어렵지 않고 비교적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독서와 교과 수업의 결합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가람중학교 도서관 협력 수업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융합 수업'의 일환으로 '책·함·성(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교육'을 공동체가 협력해 진행하게 됐다.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연구 수업 진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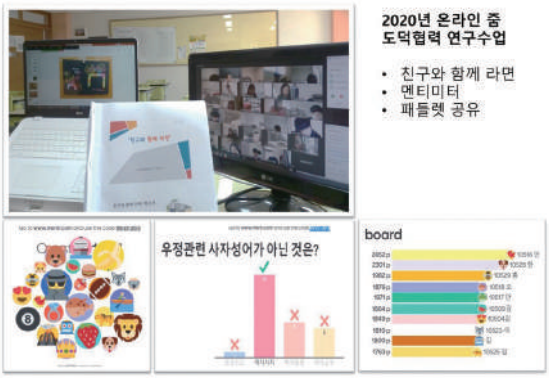
도덕·역사·음악·국어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도서관 협력 수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융합과 통섭하는 역량 중심 수업을 진행했다. 모든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수업 3회, 학부모 공개수업 1회를 학교도서관에서 진행해 학교도서관이 학교 융합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수업에 참여한 교과 교사는 전문학습공동체 평가를 통해 도서관 협력 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집중도를 높였고, 평소 집중을 못 하는 학생들의 참여도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학생들은 많은 자료와 쾌적한 공간인 학교도서관에서의 수업을 좋아했고, 학부모들도 학교도서관의 협력 수업에 만족스러워했다. 한편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멘티미터·카훗·패들렛을 활용해 온라인 협력 연구 수업도 진행했다. 교과별 수업 주제와 수업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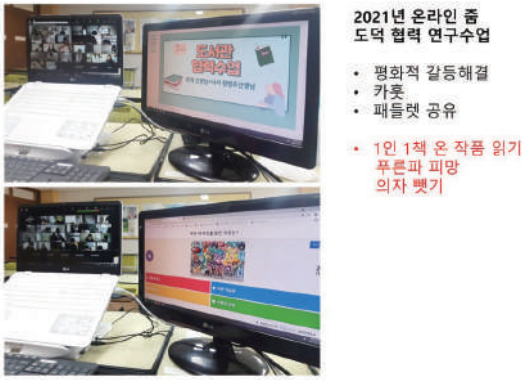
교과별 도서관 협력 수업

교과	수업 주제	수업 방법	대상
도덕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읽고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을 만한 명언을 엽서로 제작해 발표	1학년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은?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읽고 삶을 본받을 존경하는 인물 책을 제작하여 발표	1학년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온라인)	도서관 자료를 활용 친구와 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표현, 맨티미터, 패들렛 작품 공유	1학년
	평화적 갈등 해결 (온라인)	1인 1책 온 작품 읽기, 소설 속에 나오는 갈등을 통해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에 관해 토론하고 표현, 카훗 퀴즈 참여, 패들렛으로 작품 공유	2학년
역사	역사 인물 탐구하기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속의 인물을 탐구하고 인물에 관한 책을 제작하고 발표	2학년
	세계의 여러 나라 역사 이해하기	1인 1책 온 작품 읽기, 세계 역사를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탐구하고 나라를 정해 책을 제작하고 발표	3학년
음악	평시조 창작해 부르기	도서관의 옛시조, 현대 시조를 읽고 시조의 특징을 이해해 나만의 시조 만들어 부르기	1학년
기술 가정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자원관리	1인 1책 온 작품 읽기, 시간 자원의 특성을 활용해 균형 있는 생활시간을 계획	1학년
사회	과학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	1인 1책 온 작품 읽기, 사회발전에 따른 정보통신, 생명과학,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해 과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 토론	3학년
국어	독서 방법과 독후 활동 표현하기 주제를 정해 책 읽기 독서 주제 논술	한 학기 한 책 읽기. 예측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자료 찾으며 읽기, 독후 활동 표현, 독서 후 논점을 정하고 자기 생각 쓰기, 독서포트폴리오 작성하기 등	1,2,3 학년

약력 정영주

- 경기 은가람중학교
- 前 서울 세륜중학교
- 2020 전국도서관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저서 『IFLA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공동번역),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글로벌 응용사례』(공동번역)
- 논문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연구 동향 분석」





온라인 줌 도덕 협력 연구수업(2020~2021).

Chapter 2 마음 근력 키우는 '마음약국'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도울 방법 찾다가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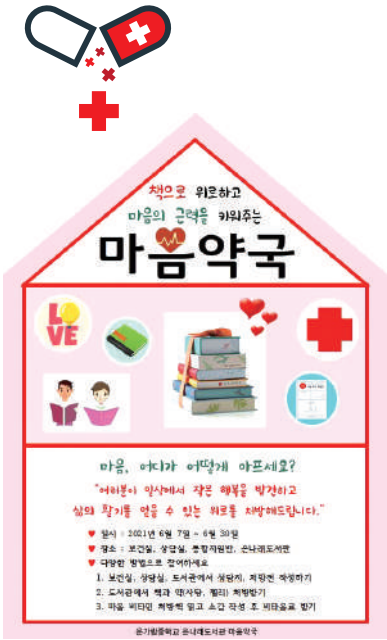
학교도서관에는 책이 좋아 오는 학생들도 많지만, 마음이 아파 오는 아이들도 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오는 아이, 쉬는 시간마다 오는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 말이다. 그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곤 있지만 늘 마음 한편이 시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마음약국'이다. 서울시청 마음약방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미 많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치료, 독서 처방 활동을 진행 중이라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운영해 봐야겠다고 생각해 오다 실천하게 됐다.

마음의 근력 키우는 책 처방전 활동

은가람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도서관 프로그램에는 '책·함·성'(책과 함께 성장하는)이 들어간다. '책함성 마음약국'은 코로나 블루를 책으로 위로하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책 처방전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마음에 비타민을 공급해 나를 건강하게 돌보고 타인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도록 돕는다. 여러 가지 증상을 성적·진로, 친구·학교, 가족 관계, 감정·불안, 코로나 블루로 나누고 상황별 독서 처방을 진행했다.

보건실-상담실-진로실-도서관의 협력체계로 운영

마음약국은 학교의 보건실, 통합지원실, 상담실, 진로실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운영을 위해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함께하길 요청했고, 다행히 모두가 흔쾌히 참여하기로 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실은 몸이 아프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학생을 도서관으로 안내하고, 통합지원실은 독서 치료 그림책 수업을 사서교사와 협력해 진



책함성 마음약국.

> ‘책함성 마음약국’은 코로나 블루를 책으로 위로하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책 처방전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행했다. 상담실과 진로실은 마음 증상에 책이 필요한 학생을 도서관으로 안내하고 문진을 통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게 추가 상담을 진행했다. 도서관에서는 마음 증상, 문진표, 마음 처방전, 책갈피 안내 자료와 책을 준비했고, 독후감을 작성한 학생에게 비타민 음료를 제공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독서 처방 받아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은 고민을 터놓을 정도로 반응이 좋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약국은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7월 방학 전까지 연장해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그 기간 110여 명의 학생이 독서 처방을 받아갔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처음 터놓는다는 학생도 다수 있어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보람을 느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운 아이들

마음약국에 참여한 학생 중 미래가 막막했던 한 학생은 “책이 나에게 실패는 당연한 거라고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 같아 미래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이 줄었다”라고 말했고, 코로나 블루로 상담을 받은 학생은 마음에 와닿은 한 문장으로 ‘무기력함을 방치하지 말고 행복으로 변화시키자’를 적으며 “책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줘 고마웠다”라고 말했다. 또 성적에 고민이 있는 학생은 “그동안 공부라는 것을 ‘지겨운 것, 하기 싫은 것, 해야만 한 것’이라 여겨왔었는데 책을 통해 공부도 ‘재미있을 수 있는 것,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했고, 가족과 대화가 단절됐다던 학생은 “책을 읽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고, 언니·오빠와 싸움이 나면 책 속의 소통 방법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마음약국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고민을 말하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처방책을 읽고 마음에 근력을 키우는 긍정의 경험이 좋았다며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다.

도서관이 학교 융합 교육의 허브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는 도서관이 더욱 학교 융합 교육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서교사는 정보전문가로 학생들이 자료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해서 앞으로도 글쓴이는 도서관 협력 수업이나 마음약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학습자로의 습관을 기르며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초등 교과서 검정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심준보·정도행·조기성 선생님에게 묻다

약력 심준보

- 창원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연구회 부회장

약력 정도행

- 양주 백석초등학교 교사
- 일본 교토 미디어아트 한일교류전 초청작가
- 전국교사영상디자인그룹 '상상그리다필름' 대표

약력 조기성

- 계성초등학교 교사
- ㈔스마트교육학회 회장
- 前 국정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 심의위원

인터뷰. 심준보·정도행·조기성 선생님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수학·사회·과학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검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올해 초 티처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사실은 많은 선생님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정에서 검정체제로 돌아서면서 발생할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여 이번 가을호에서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세 분을 모셔 '교과서 검정체제에 대한 변화'와 이에 따라 '교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았다.

Q 검정체제로 바뀌면 지금과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조기성 기존에는 예체능 교과만 검정교과서로 선택했으나 이제는 수학·사회·과학 교과서를 선정해 가르쳐야 한다. 또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같은 학년이면 모두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교사가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검정교과서 체제에서는 학교마다 선택한 교과서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교과마다 출판사가 다를 수 있어 출판사마다 자료를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학생도 학교가 선택한 교과서에 따라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골라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에 맞춰 만들어져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심준보 국정교과서는 현직 교사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교과서란 틀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검정체제로 바뀌면 더욱 다양한 내용과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또

출판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이 향상되고 풍부한 학습자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 예상한다. 반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조기성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과서가 바뀜에 따라 그동안 누적해 사용해온 학습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고, 학교마다 출판사가 달라 정보를 공유하기도 어려우며, 교과서 선정 등 교사의 업무 가중이 커질 수 있다. 또 사회 교과의 경우,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환 과정에서 '교직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도행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더 나은 양질의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교과서 아래에서는 교육내용과 자료 등에서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지 않았으나 검정교과서 체계로 바뀌면서 각 출판사, 혹은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교육플랫폼에서 자신들만의 특장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검정교과서로 바뀐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교과서는 도구이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다. 또 민간에서 교과서를 집필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정한 검정기준을 통과해야 하기에 큰 틀에서 교육과정과 역량, 성취기준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 선생님의 의견처럼 달라진 교과서에 적합한 수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일 것이다.

Q 교과서 선정 절차는? 좋은 교과서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세 분의 선생님 모두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고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고 공통답변을 내놓았다.

조기성 현재 교과별로 7종에서 10종까지 승인됐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학년 교사들과 위원회 위원들이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심준보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학생들이 재미있게 조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료의 다양성, 둘째, 우리 지역과 학교 수준과의 적합성, 셋째, 교육과정의 부합여부와 학습내용의 적절성이다.

정도행 일전에 예체능 교과서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각 단원의 위계와 학생 수준에 따른 배열인지 살펴보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러스트에 대한 부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학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발문이 있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Q 검정체제에 따라 선생님이 가장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심준보 2학기에 교과서는 선정되지만 인사이동, 학년 및 업무 배정 등이 내년 2월에야 확

정되기 때문에 교재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취기준은 같겠지만, 과학의 경우 기존의 국정교과서와는 다른 실험이 많아 사전실험, 준비물 파악, 기존의 자료 재구성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조기성 융합 수업을 준비한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주제에 맞게 교과 융합 수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검정교과서가 교육과정에 근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핵심 성취기준과 내용체계는 같으나 예시문이나 수학 스토리텔링 등이 다르므로 주제 중심으로 정리해 선정할 수 있으면 융합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학년 군에서 같은 출판사를 선정하게 되면 같은 곳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예체능 교과와 수학·사회·과학 교과서의 연동도 고려할 수 있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각 출판사와 연동이 되면 선생님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초등학교는 중등과 달라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교과를 수업하고 하나의 차시 수업을 한 번만 수업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의 활용성이 중요하다.

Q 교과서별 수업 콘텐츠 준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정도행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바뀐 교과서에서 변경·수정 가능한 부분을 우선 살펴볼 계획이다.

조기성 교과용 도서와 지도서에 제공되는 디지털 자료(USB) 및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용 콘텐츠가 제공되는 사이트(클래스메이커) 등에서 해당 차시에 해당하는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스마트교육을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과제 및 학생 피드백 등을 원활하게 하면서 수업 중이다.

심준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직접 출연하고 제작한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 반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하면 우리 반 맞춤형 콘텐츠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이러한 콘텐츠들이 객관적으로는 퀄리티가 높진 않을지라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EBS 강사의 강의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Q 검정체제 전환에 따라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면 좋을 만한 서비스는?

심준보 수학·사회·과학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전환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된

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유용할 것 같다. 같은 학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학년 간 협의를 통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생각도 나눌 수 있지만, 6학급 체제의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더 막막할 수 있어 각 교과의 출판사별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한 자료를 공유하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조기성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양한 검정교과서에 해당하는 학습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여져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다른 질문에서도 답변했지만, 초등학교는 하나의 차시를 한 번만 수업하고 여러 교과를 수업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출판사의 교수학습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사들이 본인 출판사의 회원 확보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

정도행 다양한 종류의 수업자료 제공,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단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공유 가능한 자료였으면 좋겠다. 다른 선생님들도 강조하셨지만 단지 수업에만 활용하는 자료를 넘어 교사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Q 끝으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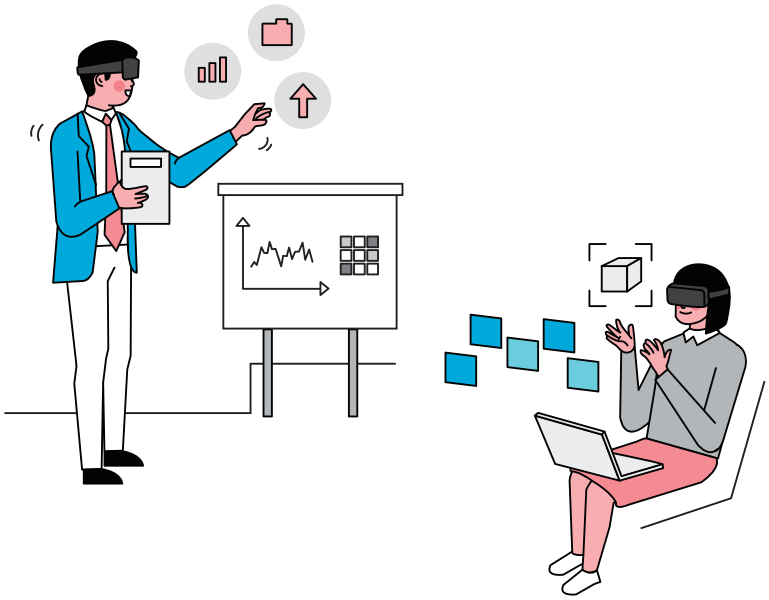
정도행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지금 그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자율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반영을 통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변화의 물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수업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조기성 검정교과서 체제로 변화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수업 준비부터 디지털 자료 활용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과정을 고려하면서 융합 수업이나 주제 중심 수업이 가능한 내용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 활용하던 인디스쿨 자료 등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서별로 학습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티처빌의 클래스메이커가 다양한 출판사의 학습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심준보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로그인 하나로 다양한 교과의 수업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출판사들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트로 수업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수학은 A 출판사, 사회는 B 출판사, 과학은 C 출판사 등과 같이 각각 접속해 참고할 수업자료를 찾기란 교사에게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교재 연구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티처빌에서 출판사별 학습자료를 제공해주는 〈클래스메이커〉를 출시했다고 하니 참고해 보면 어떨까. Ⓣ

메타버스, 학생 주도형 온라인 학습의 새로운 열쇠

글. 이상경 융합교육팀 책임연구원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대안이 됐지만 대면에 비해 학습효율이 적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실제 교실에서 수업하듯 상호 작용하며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순 없을까? 테크빌교육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학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공교육 시장 대상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왜 메타버스가 온라인 수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인지 그 이유와 사례를 소개한다.

약력 이상경

- 테크빌교육㈜ 에듀커머스사업부 융합교육팀 책임
- 前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인공지능, 파이썬 등 다수 강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은 어느새 일상이 됐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대면학습 대비 학습효율이 떨어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부각시켰다. 2021년 6월 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2019년 보다 2020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는 2.4%, 영어는 3.8%로 커졌다. 고2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국어 2.8%, 영어 4%, 수학 4.5%로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학력 미달 원인은 대면 수업처럼 온라인상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확인하며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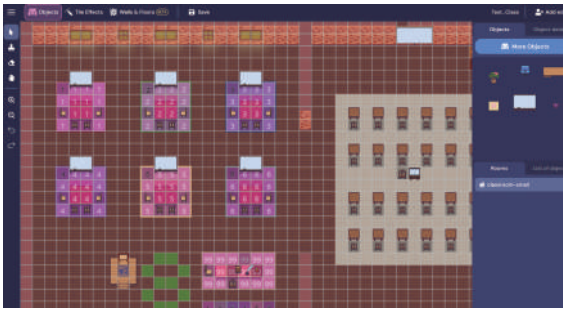
장 큰 이유다. 화상회의 S/W의 한계로 한 반의 모든 학생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교사가 수업 진도를 점검하며 수업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보고 듣고 따라 쓰는 주입식 교육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 수업일수록 몰입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중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대표적 예는 미네르바 스쿨이다. 미네르바 스쿨은 강사, 강의실이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학생이 거꾸로 수업을 도입(플립러닝)해 사전에 수업을 준비하고,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해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정도를 모니터링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와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온라인교육의 성공요인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참여'에 있다.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을 통한 교육 혁신

자기주도적 학습참여의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는 'gather town'·'제페토' 등과 같은 소셜 기반의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캐릭터를 통해 가상공간에 입장해 현실과 같이 수업에 참여한다. 목적에 맞춰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원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의 공간을 그대로 가져와 재구성했을 뿐이다. 참여형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수업적인 요소는 여전히 부족하다. gather town을 활용한 실제 수업에서는 물건 배치와 같은 공간 꾸미기 요소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하나의 방해 요소로 작용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렵게 했다.


gather Town.

제페토.

1~2. 학생들이 만든 농업관련 메타버스 공간.

3. 마인크래프트 교원연수 모습.

테크빌교육, 공교육 대상 메타버스 플랫폼 준비 중

학습모델에 맞춰 가상공간을 재구성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이 필요하다. 테크빌교육은 지난해부터 마인크래프트의 멀티접속 기능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온라인 코딩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메타버스 온라인 코딩교육은 춘천교육관·석적고등학교·SW랜선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마인크래프트에서 게임적 요소를 제한하고 교육적 기능을 부각시킨 MEE(Minecraft Education Edition)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테크빌교육은 공교육 시장에 전문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해 글로브포인트 등 여러 전문업체와 업무협약도 맺고 있다. 글로브포인트의 주력상품인 VRWARE EduSchool은 원하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퀴즈나 구글맵 그리고 동영상과 같은 보조자료를 학생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다. 주제에 따라 맞춤 공간제공, 코딩 등도 가능해 수업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멀티 접속 기능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는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소통하며,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가 학교 교육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테크빌교육이 앞장서고자 한다. Ⓣ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한

수업 자료 공유 플랫폼

21년 2학기 수업
클래스메이커와 함께 하세요~

베타서비스 오픈 http://classmaker.teacherville.co.kr

선생님의 수업에 최적화한 숏타임 영상
현직 선생님이 직접 검수하고 선별한 **추천 학습구간**

나만의 수업으로 활용 가능한 **음·미·체·실 큐레이션 콘텐츠**
출판사 과목별 차시에 따른 영상 3,200여 개

초등학교 현직 선생님과 AI가 추천하는 맞춤형 자료
우리반 아이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 46,000여 개

현직 선생님께서 직접 선별하신
초등 3 ~ 6학년
국·수·사·과 추천 수업자료
음·미·체·실 큐레이션 수업자료

클래스메이커와 함께하면
선생님의 수업은 더 편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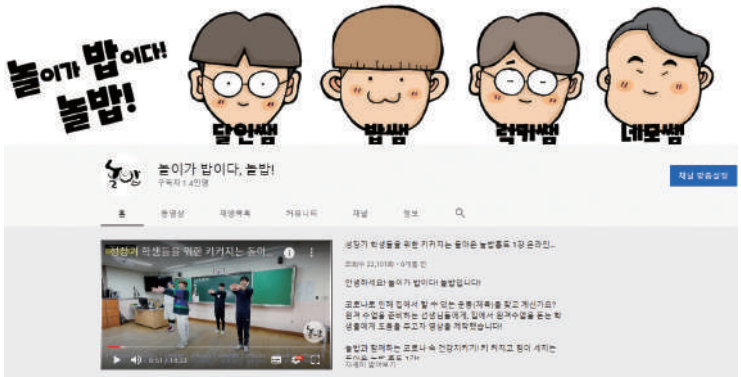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놀이를 소개하는 우리는 '놀밥'입니다

밥쌤·달인쌤·네모쌤·럭키쌤이 뭉쳤다

인터뷰. 안채원 상봉초등학교 선생님(밥쌤)
임재성 화성금곡초등학교 선생님(달인쌤)
이우경 와우초등학교 선생님(네모쌤)
신행훈 제암초등학교 선생님(럭키쌤)

"선생님들은 진정한 홍익인간이십니다!" '놀밥' 영상에는 이런 감사 댓글들이 참 많다.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제작한 영상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기 좋아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폭발이다. 하지만 영상 기획과 제작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4명의 선생님은 어떻게 만나 '놀밥'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일까? 유쾌한 영상 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놀밥 선생님들을 줌을 통해 만나보았다.

Q. 놀밥의 의미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주세요.



놀밥은 '놀이가 밥이다'의 약자로 이 세상의 모든 놀이를 다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요즘 놀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전에는 공기놀이나 빙고 등 다양한 놀이를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겐 놀이가 휴대폰이에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놀이를 알려주는 데도 없어 이러다 진짜 세상에서 놀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해서 교실과 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놀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할 수 있는 놀이, 집을 떠나 여행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 등을 만들어보게 됐어요. 놀밥은 상봉초 안채원, 화성금곡초 임재성, 와우초 이우경, 제암초 신행훈 선생님으로 구성돼 있어요.

Q. 주로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는 어떤 것인가요?

크게 체육·놀이·교육영상의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진행해요. 먼저 체육영상은 체육교과의 5가지 영역과 연계해 만들어요. 예를 들면 건강 영역에서는 홈트, 경쟁 영역에서는 스포츠, 표현 영역에서는 춤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해요. 놀이를 주제로 한 영상도 다양해요. 교실놀이·전통놀이·캠핑놀이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놀이를 다루는 날까지 진행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교육영상인데요. '티처빌이 간다'처럼 '놀밥이 간다'라는 코너를 기획해 오카리나 달인, 캘리그라피 전문가 선생님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학교와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어요.

Q. '놀밥'의 운영진이 궁금한데요.

4명의 교사가 한 팀이 돼 '놀밥'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이고 아빠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같은 학교였던 밥쌤·달인쌤·네모쌤 이렇게 셋이 시작을 했고, 이후 럭키쌤이 합류해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Q. 영상 기획과 제작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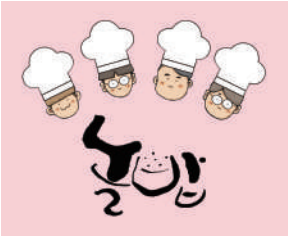
영상을 1주일에 1편씩 올리고 있는데요. 한 주가 정말 바빠요. 영상을 찍기 전엔 넷이 수시로 기획회의를 진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도 참 많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여야 하고, 재미도 있어야 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요소도 없어야 해요.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기획이 끝나면 촬영을 해요.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저녁 6시에 모여 리허설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는데 보통 9시쯤 끝나요. 이후 금요일까지 영상을 편집하고 주말에 올려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Q. 나름의 업무분장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촬영·편집 등을 같이 하는데 나눈다면 밥쌤은 총괄, 달인쌤은 제작 및 검토, 네모쌤은 편집, 럭키쌤은 촬영을 맡아요. 편집 파트가 부담이 제일 큰데 4명 모두 편집이 가능해 한 사람에게 피로도가 몰리지 않도록 1주일 단위로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만약 놀밥 홈트 1편을 밥쌤이 기획, 달인쌤이 동작 구성, 네모쌤, 럭키쌤이 영상 편집을 했다면 2편은 역할을 바꾸는 프로세스예요.

Q.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아이디어 도출이 가장 어려워요. 예를 들어 '축구'를 주제로 체육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고, 축구공이 없는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는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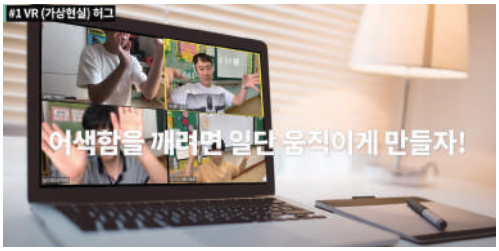
약력 놀밥

- 〈놀이가 밥이다〉 유튜브 채널 운영
-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놀이체육수업 지원단
-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놀이체육연구회 회장 및 분회장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학교안전교육 지원단(등교수업 길라잡이 개발)
-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수업혁신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및 지역화 교재 지원단
- 저서 『수업도 잡고 놀이도 잡는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공 대신 풍선과 위생 백을 공으로 활용했어요. 또 학교에서나 가능한 뜀틀을 집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고민을 매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때 그게 또 그렇게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Q. 이번 학기 활용할 만한 영상도 소개해주세요.

놀밥 채널에 있는 '줌놀이' 1~3편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체 놀이'의 하나인데요. 애들이 줌에 참여할 때 잠에서 덜 깨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잠에서 깰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있는 놀이를 해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어요. 바로 '괴짜 수집가 놀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괴짜 수집가가 돼서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물건을 가져오는데, 파란색이 꼭 들어가야 해'라고 지령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파란색이 들어간 물건들을 가지고 와요. 보통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자랑하길 좋아해 열심히 찾아와 소개해요. 괴짜 수집가는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그 물건의 주인공이 다음 번 괴짜 수집가가 되면서 게임이 이어져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집안 살림 다 가져와 보여주기 바빠요. 반면 5, 6학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은 귀찮아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걸 집어와요(박장대소). 그래서 옆에 있는 걸 가져오지 못하도록 '고물상 탐험'이라는 것을 고안했어요. '두루마리 휴지 2개 가져오기'라고 명확히 미션을 주고 가장 늦게 가져오는 친구에게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운동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활동이에요.



온라인에서 놀아보자, 줌놀이 Top 10!

Q. 유아와 집에서 할 만한 활동도 있을까요?

포스트잇을 활용해보세요. 서로 몸에 붙인 후 춤을 춰 더 많이 떨어뜨리기 대결도 좋고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상대방 이마에 붙인 뒤 스무고개처럼 서로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이 깔깔대며 숨넘어가듯 웃고 즐거워해요. 빨대 멀리 던지기와 빨대 던지고 박수치기도 집에서 해보기 좋아요. 포스트잇과 빨대는 가정에서 구하기도 쉽고요.

Q.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이었던 콘텐츠를 하나 골라준다면요.

체육 콘텐츠 중 표현영역의 하나로 '춤으로 세계 속으로'라는 코너를 운영 중인데요. 여기 올린 영상 중 마오리족 민속춤 '하카'를 춰보는 영상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얼굴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원주민 분장을 한 채 '우가우가' 외치며 춤을 췄으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 했죠(다들 춤도 잘 춘다). K-pop이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전통춤은 누구나 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흰 4명이니깐 동작을 분담해 서로에게 가르쳐주다 보니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것 같고요. 특히 네모쌤이 춤에 일가견이 있어요. 춤은 다들 짜오지만 항상 그것을 완성하는 건 네모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잘못된 동작을 가르쳐줄까봐 걱정이 돼 관련 자료도 더 열심히 찾아보고, 회의하고, 서로 동작 맞춰보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요.

놀밥 영상에 달린 댓글.

Q. 놀밥을 운영하면서 즐겁고 보람된 순간도 많았죠?

참 많은데요, 영상을 본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응원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너무 재미있어요'부터 '놀밥 덕분에 수업 잘했어요', '놀밥 너무 좋아요. 덕분에 힘이 나요'와 같은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그때가 가장 보람되더라고요.

Q. 앞으로 놀밥의 계획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체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체육영상을 계속 찍어 공유해 보려고요. 두 번째는 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 및 융합체육에 관련된 영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모두 백신을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아이들은 원래대로 등교할 테니 이때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제시하고 싶어요. 원래 2학기에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및 융합체육을 중심으로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방향을 선회해 당분간은 온라인 체육에 집중하려고 해요. 또 영상 공부도 좀 더 해서 보다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려고요.

Q. 끝으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께서 '놀밥'을 통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소'로 월급받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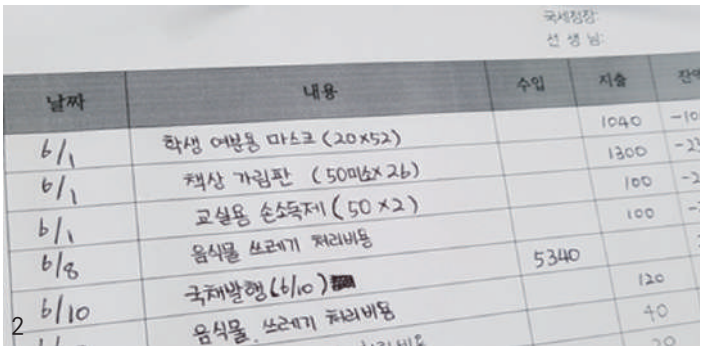
글. 옥효진 송수초등학교 선생님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린 게 무슨 돈 이야기니?" 아이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어른들은 이렇게 타박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벌어야 하며, 현명한 소비와 투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이 직접 레몬을 사고, 갈고, 판매하며 비용과 이익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레모네이드 스탠드(Lemonade Stand) 활동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교 교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경제와 금융을 가르치면 좋을까. 어린이 경제동화 『세금 내는 아이들』의 저자이자 2020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수상자이기도 한 옥효진 선생님께 교실 속 경제교육 방법을 물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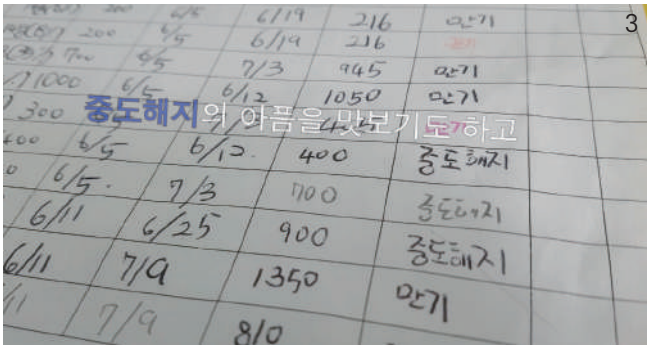
왜 삶에서 꼭 필요한 '돈'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을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기다 대학교 4년 총 16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꿈꾸던 교사가 됐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을 모두 마쳤는데, 나는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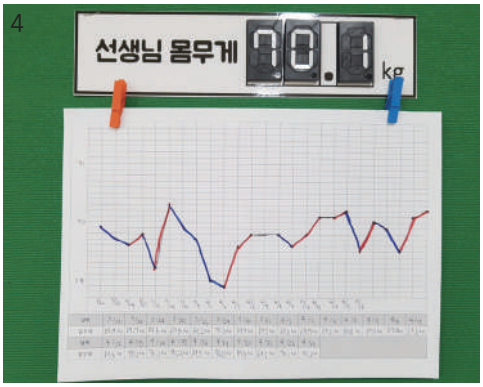
1. 학급 가상 화폐단위는 '미소'.
2. 아이들이 낸 세금으로 교실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다.
3.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하기도 한다.
4. '선생님의 몸무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2



3



4

약력 옥효진

- 부산 송수초등학교 교사
-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 운영
- 어린이 경제동화 『세금 내는 아이들』 저자
- EBS원격교육연수원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 세금 내는 아이들' 연수 강사
- 2019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대한 상공회의소장상 수상
- 2020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수상

것인지, 신용등급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왜 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고 사회에 내보내는 거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겐 학교에서 경제·금융을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움직이는 교실을 구상하게 됐다.

교육과정에도 경제단원이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경제에 대해 가르친다.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이 통째로 경제단원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사, 가계와 기업, 국가 간의 교류'와 같은 것이다.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아이들의 생활과는 더욱더 동떨어진 느낌이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고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닌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직접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즐거운 학급화폐활동

나름의 고민 끝에 즐겁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급화폐활동'을 고안해

냈다. 학급화폐활동은 3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 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급화폐활동을 하는 교실은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된다.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모두 국민이 된다. 국민으로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다. 친구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 도우미, 청결한 교실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 저축상품을 관리하는 은행원, 친구들의 제출물을 확인하는 통계청 등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사실 이전 교실에서 운영하던 1인 1역할에서 직업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월급 받고 세금 내며 자연스럽게 경제·금융 개념 익혀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는다. 물론 월급은 실제 돈이 아니라 우리 반에서만 쓸 수 있는 가상의 화폐단위인 '미소'로 받는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과자를 사 먹거나 급식 먼저 먹기, 칠판 낙서권 등 다양한 쿠폰을 사기도 한다. 한 번의 월급으로 사기 어려운 물건이나 쿠폰을 사기 위해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기도 한다. 저축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몸무게'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선생님 몸무게가 0.1㎏ 올라갈 때마다 1%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월급이 '200미소'라도 돈을 모두 받지는 못한다. 15%의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월급에서 걷어간 세금은 우리 반을 위한 곳에 사용이 된다. 교실에 분필이 떨어졌거나 시계의 건전지가 필요할 때 아이들이 낸 세금으로 교실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다. 이처럼 교실 속에서 마치 놀이처럼 활동하며 경제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학급화폐활동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세금·예금·투자·만기·신용점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어렵기만 했던 단어도 이제는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경제교육, 그리고 즐거움

학급화폐활동은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을 위한 활동이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배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장점이 있다. 바로 교실이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이 활동을 시작하고 '학교 오는 게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활동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교사도 즐겁긴 마찬가지다. 이야깃거리도 많아지고, 추억이 될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긴다. 글쓴이처럼 경제·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번 학기부터 학급화폐활동을 해보길 권한다. 교실이 즐거워진다. Ⓣ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

학교옆선물가게
바로가기

티처몰이 만든 학교전용 스쿨굿즈샵

학교옆 선물가게

티처몰이 하면 달라요

입학, 졸업, 체육대회, 재학생, 학부모 선물 등
상황과 대상에 맞는 학교 특화 상품들을 맞춤 제작!

학교의 상징

"교포" 디자인을 바꾸세요.

전문 디자이너가 오래된 로고를
그래픽&인쇄파일로 복원 또는 새롭게
디자인 합니다.

복원전 티처몰
복원후 티처몰

OPEN EVENT 학교 옆 선물가게 상품 200만원이상 구매 시 교포 복원서비스 무료!

[학교 탐방]

특성화고와 사랑에 빠진 예술학도, 나의 사랑 목포중앙고

글. 김 웅 목포중앙고등학교 선생님

대학보다 화려한 캠퍼스, 첫 만남에 홀딱 반해버려

처음 마주한 목포중앙고등학교는 '웅장함' 그 자체였다. 흡사 개선문과 같은 거대한 대리석 교문, 그 거대한 교문에 아로새겨진 교가의 악보 위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로 우리에게 친숙한 김지하 시인의 이름이 작사가로 적혀 있었다. 이어서 마주한 것은 빼곡한 나무들과 바위, 학교 전체를 따뜻하게 품은 지적산 아래에 늘어진 수많은 건물이었다. '교정'보다는 사실 '캠퍼스'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최종면접까지 보러 갔을 때, 잠시 들어가 본 방송영상과 미디어센터 덕에 나는 쉽게 이 학교와 사랑에 빠져버렸다. 건물과 장비들의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었고,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학교 안에서 못 만들 콘텐츠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공업·상업·예술계의 기묘한 동거

어렸을 때 나관중의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다. 위·촉·오나라에 사는 다양한 인물들의 혀를 내두르는 전략과 인간다운 삶이 펼쳐지는 난세의 영웅담 말이다. 목포중앙고 안에도 작은 삼국지가 펼쳐져 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전공 학과 세 개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회계·총무 관련 전공 지식과 실무를 배우는 '경영정보과',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국가적 효자산업이자 지역산업이기도 한 조선업계의 실무자 양성을 위한 '조선산업과', 그리고 영상 기획·연

약력 김 웅

- 목포중앙고등학교 방송영상과(연극·영화) 교사
- 前 ㈜메가스터디교육 학원사업본부 사원
- 前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홍보장교

출·촬영·조명·음향 등의 기술을 익혀 방송·영상 제작 현장의 인력을 양성하는 '방송영상과'다. 또 꼼꼼하고 세심한 상업계열 경영정보과, 호탕하고 유쾌한 공업계열 조선산업과,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예술계열 방송영상과 학생들은 서로 귀엽게 아웅다웅하며 견제했다가, '중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다가를 매년 반복한다.

특성화고의 제갈공명, 목포중앙고에 출사표 던져

올해 초, 목포중앙고의 '삼과 통일' 비전을 출사표로 던지며 제갈공명이 등장했다. 새로 부임한 임언택 교장 선생님은 한평생 특성화고에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떨군 구슬땀으로 이미 명문 특성화고의 결실을 일궈 본 진짜 제갈량이다. 목포중앙고 부임 후 교육부 특성화고 혁신사업 선정,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억' 소리 나는 굵직한 사업들을 줄줄이 성사시키며 승승장구하는 신묘한 전략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나날이 행복한(솔직히 가끔 좀 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차원이 다른 복지, 자격증 대비에 힘 쏟는 학생들

학교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오전 수업만 진행한 후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자유롭게 팝콘·크로플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했다. 외국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복지를 아이들과 교직원에게 제공하지만, 직무능력 필기시험, 자격증 대비가 일반계 고교 대입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방과 후와 야간까지 진행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표정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명랑하지만 요즘 살짝 섬뜩한 '독기' 같은 것이 눈동자에 서려 있다. 그 얼굴만 보면 누군가는 현대중공업이 됐든, 한전이 됐든, 공무원 시험이 됐든, 대박 사건 한 번 터뜨리고 졸업할 기세다.

코앞에 다가온 고교학점제… '스마트'한 융합으로 창의교육 모색

학과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 내후년부터 조선산업과는 스마트설비과, 경영정보과는 스마트경영과로 학과를 변경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각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서로의 장벽을 낮추고 '융합 교육' 아래 협조하며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모색하고 있다. 두 학과는 프로그래밍, 사무 행정, 물류관리,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등의 수업을 상호 교류하며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역 장비 운전 실습 과목은 방송영상과까지 전 학과 공통으로 운영해 취업의 폭을 넓힐 것이다.

특성화고 선생님, 혹시 '부캐'가 있으신가요?

학부 시절 교육철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했는데 그때 당시엔 피상적으로 살갗을 스치던 문장이 요즘 따라 뼈에 와닿는다. 모든 교과가 그렇겠지만, 특히 특성화고 교사라면 개인의 '전문성'이라는 무기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마해야 교육의 질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임언택 교장 선생님은 이것을 두고 요즘 말로 '부캐'를 만들어야 한단다.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를 넘어 교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정글과도 같은 특성화고에서는 결코 제자들의 성장만으로는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의 완성은 결국 교사의 성장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이 특성화고의 필승 생존 전략일 것이다. Ⓣ

매일일보 (2021. 06. 29)

[기고] AI와 손잡은 교실, 상상에서 현실이 되려면

(기사전략) AI가 교실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AI 기반 개인화를 위한 교육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은 우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과정이다. 정부의 SW 교육에서도 경험했겠지만, 인공지능 교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앞으로의 교육문화를 바꾸기 어렵다.

교사들이 실제적인 니즈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교사 스스로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에 익숙해져야 수업 안에서 AI 기반 융합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교사 지원 플랫폼, '티처빌'도 이런 흐름에 맞춰 변화 중이다.

앞으로 티처빌을 통해 수집되는 교사 직무연수·콘텐츠·모임·수업교구 등의 데이터와 교사의 전반적인 활동 및 학습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AI 기반 교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 스스로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사 지원 플랫폼에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한다. 'AI와 손잡은 교실'은 교육분야 혁신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다.

그동안 맞춤형 개별화 학습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학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는 물론 즉각적 피드백을 통해 학습개선까지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하략)

나기호 기자

전자신문 (2021. 07. 05)

테크빌교육, 글로브포인트와 VR교육의 공교육 시장 진출을 위한 MOU 체결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글로브포인트(대표 조상용)와 가상현실(VR) 및 메타버스 교육의 공교육 시장 진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 합성어다. 3차원을 포함하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교육에서 메타버스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브포인트의 VR 교육 프로그램인 'VRWARE(VR웨어)'를 공교육 시장에 선보인다. (기사중략) 글로브포인트는 VR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테크빌교육은 공교육에 적합한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교육청 및 학교, 교사 대상 영업을 책임지기로 했다. 또 글로브포인트와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 공교육 수요에 적합한 형태로 VR웨어를 지속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기사하략)

김명희 기자

이코노믹리뷰 (2021. 07. 19)

테크빌교육, 비상교육과 함께 손잡고 초등 전용 교구몰 오픈

테크빌교육이 비상교육과 함께 초등 교수 지원 사이트 '초등 비바샘'과 연계된 비상교육 전용 교구몰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비상교육 전용 교구몰은 교사들이 초등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15일, 테크빌교육의 교육 전문 교구 쇼핑몰인 티처몰과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사중략)

최대찬 비상교육 출판 컴퍼니 대표는 "교구몰 개설로 인해 초등 수업 콘텐츠에 양질의 교구가 더해져 풍성한 수업 환경이 제공되고 교사들 수업 준비 과정에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초등 수업 전문가 교사와 함께 만드는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교구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교육과 업무협약을 맺은 테크빌교육 티처몰은 공교육시장에서 20년간 사업을 진행한 60만여명 교사 회원을 보유한 교육 전문 교구 쇼핑몰이다. 각종 교육 현장에 필요한 학습 교구와 직접 기획 및 개발한 자체 상품 등 16만여개를 공급하고 있다.

전지현 기자

한경잡앤조이 (2021. 07. 21)

'AI가 교육하는 시대 성큼' 교육시장에 부는 인공지능 열풍

(기사전략)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은 AI 기반 교사 수업 공유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9월부터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다. 클래스메이커는 교과서 검정체제를 대비해 교과서별 다양한 수업 자료를 추천하고 교사들이 수업 지도안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이상의 수학·과학·사회 교과서를 국정체제에서 검정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담임 교사는 매일 과목마다 4~6개 출판사의 수업자료 사이트를 접속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데, 클래스메이커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클래스메이커는 1만 2,000여개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AI와 현직교사가 출판사별 초등 3~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학년·과목·단원·차시별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또 현직 교사가 제작해 등록한 1453차시의 수업 자료를 활용해 교사는 간편하게 나만의 수업 지도안을 만들 수 있으며 학교의 동료 선생님, 같은 학년 선생님과 수업 자료를 손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

이진호 기자

뉴스1 (2021. 07. 27)

테크빌교육, '워라몬 티처' 출시…"김경일 교수와 위기 속 해답 찾기"

테크빌교육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워라몬(Work and Life Harmony) 티처'를 직무연수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아주대 창의력 연구센터장이자 '세바시', '어쩌다 어른' 등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학 강의를 진행해온 국내 최고 인지심리학 전문가다. '워라몬 티처'는 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김 교수가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는 △워라몬이란 △학교 업무로 고갈된 에너지, 어떻게 충전해야 할까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낮아져요 △동료 교사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등을 주제로 30차시 2학점의 직무연수로 운영된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는 "워라몬 티처는 교사의 다양한 고민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기 기자

테크월드 (2021. 08. 10)

티처빌, 존리 금융전문가와 '주식의 정석' 연수 출시

테크빌교육의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이 금융투자전문가 존리 대표와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와 함께 '주식의 정석'이라는 신규 연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존리는 메리트자산운용 대표이자 '유퀴즈온더블럭', '쌤과함께' 등 다수의 방송에서 주식 강연을 진행해온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전문가이다. 주식의 정석은 주식은 잘 모르지만 투자는 하고 싶다는 주식투자 입문자를 대상으로 존리 대표의 30년 투자 팁과 올바른 금융습관에 대해서 알려준다. 본 과정은 ▲올바른 투자전략 ▲주식 거래 방법 ▲주식차트 읽는 법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사람들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 등의 주제로 30차시 2학점의 직무연수로 진행된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는 "평소 주식에 관심은 있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교사들에게 주식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중략) 한편, 티처빌은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토대로 교원연수, 강의 콘텐츠, 모임 등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교사 교육지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의 기자

전자신문 (2021. 08. 23)

테크빌교육, 금성출판사와 MOU 체결… 9월부터 '클래스메이커'에 콘텐츠 제공

테크빌교육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티처빌)이 수업 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통해 금성출판사 검정교과서와 연계한 수업 콘텐츠를 내달부터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사중략) 지난 19일 테크빌교육은 교과서 검정체제에 따른 공교육 교사 수업 지원을 위해 금성출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성출판사는 검정교과서와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 및 준비물 리스트를 티처빌에 제공하고, 티처빌은 클래스메이커로 교사에게 홍보 및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육 전문 쇼핑몰 '티처몰'에 금성출판사와 연계된 전용 교구몰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는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로 새로운 교사 교육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티처빌에 클래스메이커가 본격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클래스메이커가 교과서 검정체제 전환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서 편찬 출판사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내일신문 (2021. 08. 25)

K-에듀테크 기술에 세계가 '엄지 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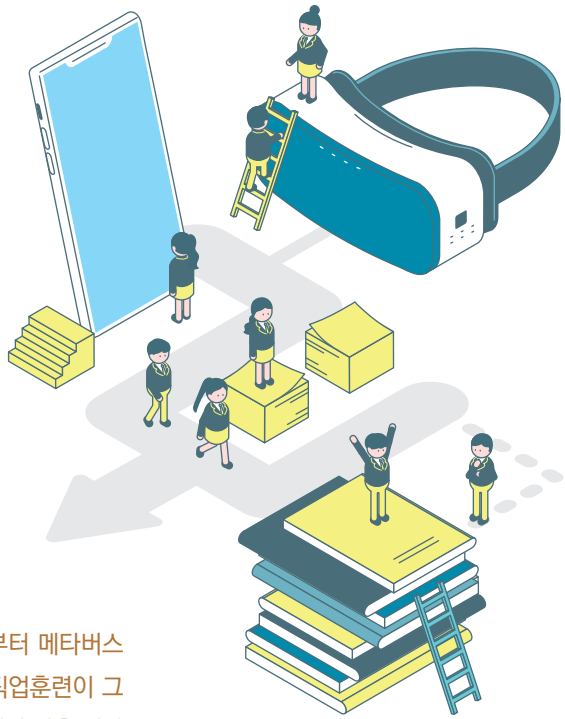
지난 9~11일(현지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듀테크컨퍼런스 'ASU+GSV 서밋'에서 한국의 교육시장과 관련 AI(인공지능) 기술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행사에서 미국 교육시장 조사기관인 홀론아이큐(HolonIQ)의 패트릭 브러더스 매니징디렉터는 "세계 곳곳에선 한국 교육시장의 성공 비결을 탐구하고 그 사례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기사중략)

테크빌교육은 AI기반 교사수업지원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9월부터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다. 클래스메이커는 교과서 검정체제를 대비해 교과서별 다양한 수업 자료를 추천하고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내 최초 교사용 오픈마켓 콘텐츠플랫폼 '쌤동네'는 AI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사가 직접 만드는 유·무료 수업 자료, 콘텐츠와 온·오프라인 모임도 지원한다. 테크빌교육은 2003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에듀테크연구소를 인가 받아 에듀테크 기술을 연구개발해 왔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확장된 실감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학교에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기사하략)

김형수 기자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
교육과의 접목은 티처빌에서

글.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새로운 용어처럼 다가오지만 사실 교육 분야에선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해왔다. 마인크래프트나 가상세계(VR)를 활용한 직업훈련이 그 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현실 세계와 같은 메타버스를 마주하기 어렵다. 잠깐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쌤동네에 이미 메타버스 관련한 온라인 모임이 개설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메타버스 개념과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수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티처빌은 선생님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교육의 영역과 방법을 확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신규 연수와 신간 서적 출시를 준비 중이다. 관련해 김지혜 티처빌사업부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바이러스가 가져온 공교육의 변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온 지 벌써 1년 8개월이 흘렀다. 엄청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여러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불러왔다. 교육도 예외는 없었다. 100년 동안 변함이 없던 교육도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선 단 6개월 만에 그 모습을 바꿔야만 했다.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온라인 수업으로 전격 전환됐고, 그동

안 학교 밖에 존재하던 다양한 온라인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학교 안으로 찾아왔다.

변화의 중심에 선 교사, 쌤동네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변화 속에서 교사도 달라져야만 했다. 그 변화는 티처빌 '쌤동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쌤동네는 티처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교사 전용 오픈 마켓이다. 그중 쌤동네의 '쌤모임'은 교사가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수와 모임을 공유하는 장인데, 온라인 직무연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교사의 니즈와 교육 이슈가 이곳에 모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쌤모임에서 올해 겨울방학 두 달 동안 생성된 연수를 확인해 보았다. 총 172개의 연수(모임)가 진행됐고, 이중 95%가 ZOOM으로 하는 온라인 연수였으며 74%가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연수(모임)였다. 최근에는 스마트교육학회에서도 메타버스와 블렌디드 러닝으로 하계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게더타운'처럼 메타버스 관련한 온라인 모임도 쏙쏙 개설되고 있어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쌤동네 온라인수업&메타버스 쌤모임.

메타버스란? 게더타운, 로블록스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

메타버스라는 용어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 예로 비디오 가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을 말할 수 있다. 최근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 주로 학교나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게더타운은 ZOOM이 가지고 있는 화상회의에 가상의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어 가상 사무실·회의·컨퍼런스·수업·강의 모임이 가능하다. 또 전 세계 어린이들을 사로잡아 초통령이라 불리는 '로블록

약력 김지혜

-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
- 前 캐럿글로벌 커리어 컨설턴트

스'는 아바타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키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Z에서 만든 SNS플랫폼 '제페토'도 얼굴인식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고 놀이·쇼핑·업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 SKT에서는 만든 이프랜드 또한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SNS 플랫폼이다.

티처빌,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회의 진행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티처빌도 오프라인 회의를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21년 하반기 사업계획' 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어 메타버스도 경험해볼 겸 '이프랜드'를 활용해 회의를 진행했다.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의 회의 공간을 만들어 PDF 파일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등의 외부 기술과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실제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며 티처빌 서비스와 교육에는 어떻게 접목해 선생님들께 제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했다.

티처빌사업부 '이프랜드' 메타버스에서 21년 하반기 사업계획 회의 진행.

메타버스 관련한 직무연수 새롭게 선 보여

그 결과 지난달 이임복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1학점의 신규 연수를 출시했다. 본 연수는 △메타버스를 이해하라 △메타버스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이미 경험했던 메타버스 △소셜 메타버스에 주목하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메타버스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수를 실제 수강한 선생님

> 티처빌 연수를 통해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쌤모임과 테크빌 서적을 통해 교육을 메타버스에 태워보자.

은 "미래 교육에 관심이 더욱 커졌고 오락이라고만 생각하던 게임 세계와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또 AR·VR 등의 실생활 사례들을 메타버스와 연동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1학점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직무연수.

테크빌교육, 메타버스 신간 서적 출시 앞두고 있어

연수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교육을 주제로 신간 서적 발매도 앞두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기 시작한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와 국내 VR·AR 권위자로 손꼽히는 테크빌교육 에듀테크연구소부문 박기현 대표가 '메타버스의 교육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원고를 집필 중이다. 또 이번 2학기에는 티처빌 강사와의 온라인 연수를 메타버스에서 선보일 예정이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존 듀이는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뺏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도, 선생님도 달라지는 환경에 맞춰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술은 교육을 위한 보완재였다. 하지만 어느새 기술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사의 역할과 교육의 방법까지 바꾸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메타버스 또한 교육 영역과 방법을 확장해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니 차분히 학습하고 준비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티처빌 연수를 통해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쌤모임과 테크빌 서적을 통해 교육을 메타버스에 태워보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선생님'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길을 티처빌이 지원할 것이다. Ⓣ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6기	**4학점**	**09월 15일**	**11월 02일**	**10월 30일**	**11월 05일**
	3학점	09월 01일	10월 05일		10월 06일
	3학점	09월 15일	10월 19일		10월 20일
	3학점	10월 06일	11월 09일		11월 10일
	3학점	10월 20일	11월 23일		11월 24일
	2학점	09월 01일	09월 28일		09월 29일
	2학점	09월 15일	10월 12일		10월 13일
	2학점	10월 06일	11월 02일		11월 03일
	2학점	10월 20일	11월 16일		11월 17일
	1학점	09월 01일	09월 28일		09월 29일
	1학점	09월 15일	10월 05일		10월 06일
	1학점	10월 06일	10월 26일		10월 27일
	1학점	10월 20일	11월 09일		11월 10일
7기	**4학점**	**11월 03일**	**12월 14일**	**12월 11일**	**12월 17일**
	3학점	11월 03일	12월 07일		12월 08일
	3학점	11월 17일	12월 21일		12월 22일
	3학점	12월 01일	12월 28일		12월 29일
	2학점	11월 03일	11월 30일		12월 01일
	2학점	11월 17일	12월 14일		12월 15일
	2학점	12월 01일	12월 28일		12월 29일
	1학점	11월 03일	11월 23일		11월 24일
	1학점	11월 17일	12월 07일		12월 08일
	1학점	12월 01일	12월 21일		12월 22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부모공감키즈는 티처빌연수원의
패밀리 사이트입니다.

신규오픈

영유아 성장놀이몰, 부모공감키즈

자녀와의 놀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모공감키즈는 자녀 발달에 꼭 필요한 놀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놀이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놀이를 통해
아이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놀이를 통해
아이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 놀이 전문가, 영유아 발달 전문가, 영유아 교육전문가,
영유아 상담코칭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배움이 되는 놀이를 연구합니다.

부모공감키즈를 만나면 부모가 놀이전문가가 됩니다.

키즈 부모공감

LET'S PLAY TIME!!

놀이에 가치를 더하다, 부모공감키즈!

www.bumonkids.com

부모공감키즈 바로가기

· 2021년 티처빌 신규과정 ·

타일러가 알려주는 원어민의 진짜 영어

2학점

리얼클래스! 타일러의 진짜 영어

타일러 라쉬(Tyler Ra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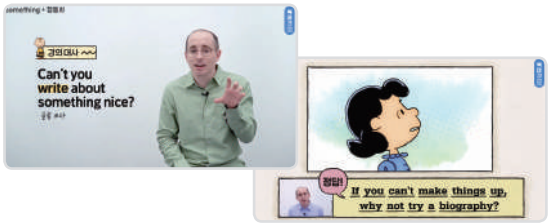
강의 개요

〈뇌섹시대-문제적 남자〉·〈비정상회담〉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입담과 다양한 지식을 뽐내며 일명 '뇌섹남'의 대명사가 된 타일러 라쉬! 본 과정은 타일러의 유쾌한 강의와 스누피 애니메이션으로 '실제로 쓰는 영어'와 '자연스럽고 활용도가 높은 영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연수이다.

영어로 어떤 표현을 말할 때, '지금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연수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바로 '영어 자신감'이다. 연수에서 배우는 표현이 실제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 있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강의 특징

-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알고 영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쓰는 기초 회화와 동사 표현을 설명
- 스누피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를 통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 제시



메타버스, 새로운 사회를 말하다!

6차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이임복

강의 개요

2000년대 '인터넷 혁명', 2010년대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모바일 혁명'에 이어 2020년에는 MZ세대 뉴노멀을 만나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다.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과 대학교 입학식 등 이미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접근과 활용을 위한 연구도 시작됐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세상이 주목하는 걸까. 본 과정은 메타버스로 변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짚어보며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실시간 원격수업을 처음 시작하던 날처럼 당황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알아가야 한다. 이것은 곧 교사의 배경지식이 돼 수업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강의 특징

-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 사례 제시
- 현직 교사의 Q&A를 통한 교사의 시선에서 궁금한 질문과 답변 제시

16가지 성격 유형에 맞춘
학생 지도법을 고민한다면!

1학점

MBTI, 너와 나를 바라보다

김 재 형

강의 특징

- 원격연수원 최초 MBTI 심리 검사 도구를 다룬 직무 연수
-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올바른 활용법 제시
- MBTI를 활용해 학습법, 친구관계, 진로고민 상담 진행

강의 개요

'너는 어떤 MBTI 유형이야?' 요즘 학생들은 서로를 파악하는데 '이 도구'를 활용한다. Myers와 Briggs 모녀가 개발한 심리 검사 도구, MBTI다.
총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인간의 특성을 구분한 이 도구는 2021년 가장 인기 있는 심리 검사 방법이다. 단 16가지의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도 MBTI가 떠오른 이유는 각 성향을 구분하는 지표가 구체적이고 세분돼 있다는 데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나무보다 숲을 보는지, 관계보다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향을 구분한다. 본 연수는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며 오개념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MBTI로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제시한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법까지!
All in one!

2학점

All in one, 인공지능으로 디자인하는 미래 혁신 교육

정 두 희

강의 특징

- AI 전문가 정두희 교수가 AI의 기본 개념을 최신 사례로 설명
-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럴 머신, 티처블 머신, 엔트리 활용법 안내
- 경기도 AI 연구회 선생님들이 AI 수업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 및 관리 노하우 공유

강의 개요

2021년 교육 과정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하지만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인공지능의 활용법이 교육 현장에 보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수는 AI의 개념부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법을 제안한다.
개념과 활용법을 모두 제안하지만, 겉핥기가 아니라 수준이 높다. AI 전문가 정두희 한동대학교 교수가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AI 개념을 전한다.
아울러 경기도 AI 연구회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프로그램(모럴 머신, 티처블 머신, 엔트리 블록 코딩)의 활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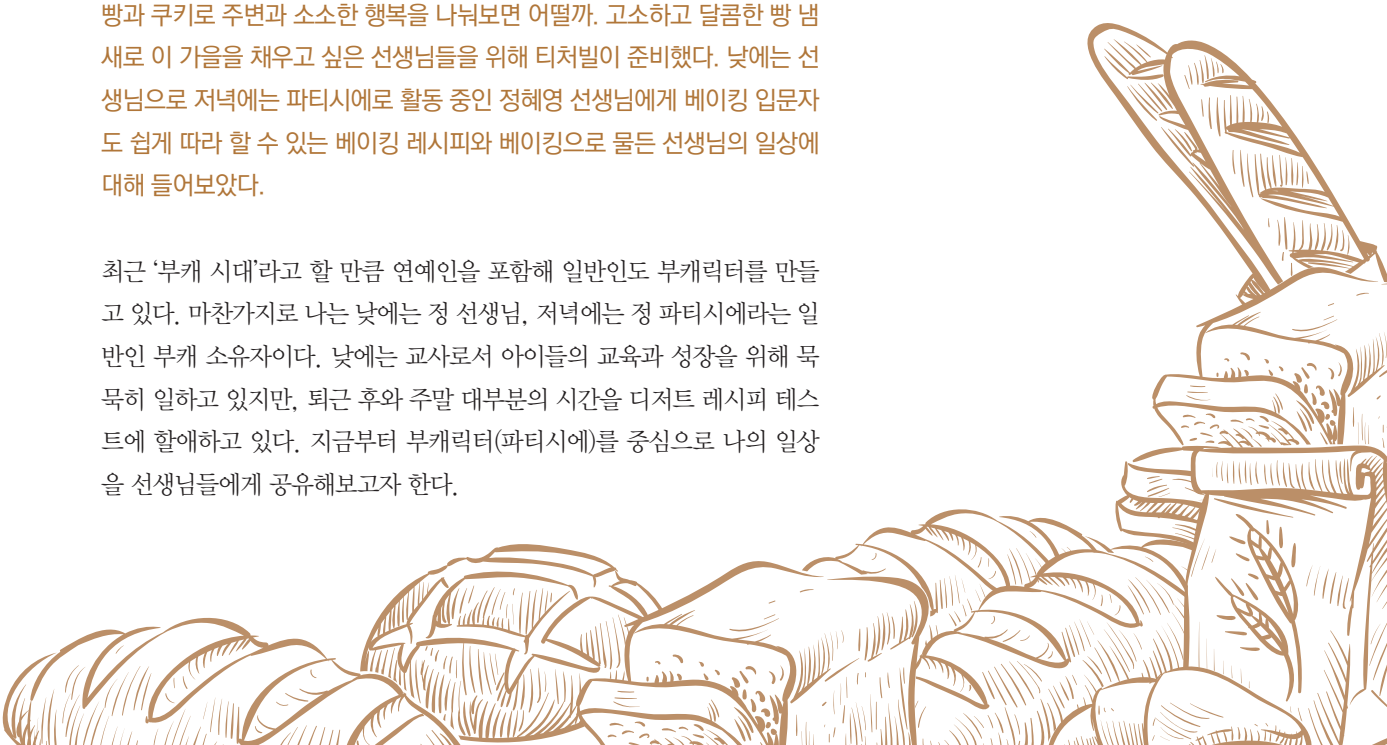
낮에는 선생님, 저녁에는 파티시에

지금은 부캐 시대! 베이킹의 매력에 빠지다

글. 정혜영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선생님

갓 구운 빵 냄새가 유난히 잘 어울리는 계절, 가을이다. 이제 더위도 물러갔고, 집에서 직접 베이킹을 해봐도 좋을 만큼 선선해졌다. 올가을엔 직접 만든 빵과 쿠키로 주변과 소소한 행복을 나눠보면 어떨까.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로 이 가을을 채우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 티처빌이 준비했다. 낮에는 선생님으로 저녁에는 파티시에로 활동 중인 정혜영 선생님에게 베이킹 입문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베이킹 레시피와 베이킹으로 물든 선생님의 일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 '부캐 시대'라고 할 만큼 연예인을 포함해 일반인도 부캐릭터를 만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낮에는 정 선생님, 저녁에는 정 파티시에라는 일반인 부캐 소유자이다. 낮에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퇴근 후와 주말 대부분의 시간을 디저트 레시피 테스트에 할애하고 있다. 지금부터 부캐릭터(파티시에)를 중심으로 나의 일상을 선생님들에게 공유해보고자 한다.



왼쪽부터 슈, 다쿠아즈, 파운드 케이크, 스콘.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과거의 취미를 찾아서

공간과 시간이 자유롭지 못했던 임용고시 수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학창 시절의 취미활동이었던 베이킹을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어 제과제빵학원을 등록했고 집중적으로 몰입했다. 학원이나 집에서 만든 갓 구운 빵을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고, 나 자신에게도 선물하면서 지친 일상을 달랬다. 이렇게 한 겹 한 겹 쌓인 베이킹 경험은 여러 사람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고, 특색 있는 디저트를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했다.지금은 SNS를 통해 홈베이킹 생활을 표현하고 소소한 일상과 요리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베이킹의 매력, 늘 새롭다.

영국을 대표하는 스콘, 프랑스의 다쿠아즈, 미국의 피칸파이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빵이라도 레시피에 따라 맛과 향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베이킹의 매력은 늘 새롭다.
베이킹을 통해 제조된 결과물의 맛을 비교해가며 상상했던 풍미가 느껴질 때의 기쁨은 무척 크다. 예쁜 식기 위에 세련되게 장식하고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담는 재미도 쏠쏠하다. 베이킹 작업을 SNS에 올리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정말 즐겁다.

베이킹에 자신감이 붙은 뒤로는 가족을 위한 간식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 흠뻑 빠진 빵을 베푸는 즐거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이와 동시에 맛있게 먹었다는 피드백과 기술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은 베이킹에 대한 의욕을 더 커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

약력 정혜영

- 정혜영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교사
- 서울형 혁신학교 근무

베이킹 관련 버킷리스트, 달콤한 미래의 도전

낮에는 선생님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디저트에 대한 다감각적이고 융합적인 수업을 제공하고 싶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요리에 한층 더 재미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 혹은 진로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갖게 된다면 굉장히 보람찰 것 같다. 졸업 후에는 학생과 그 가족이 실제 베이커리 업계에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하고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싶다.

저녁에는 파티시에

다양한 디저트의 기본적인 베이킹 기술부터 고급 기술까지 익힘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베이킹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오프라인에서는 베이킹 연수 강의하기,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베이킹 관련 책을 기획해 집필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싶다. 온라인상으로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의 SNS로 베이킹 생활을 공유해 디저트의 즐거움을 전하는 열정의 부캐릭터가 되고 싶다. 이 외에도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제과·제빵 배우기, 건강한 빵 메뉴 개발하기 등의 달콤한 미래의 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본캐와 부캐의 삶

본캐인 선생님의 모습도 좋지만 부캐에 대한 애정도 크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정의하고 싶지 않다. 선생님으로서의 모습, 파티시에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끊임없이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는 도전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 함께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나와 소통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자극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다. 이렇게 나는 본캐와 부캐를 병행하는 값진 삶을 살고자 한다. Ⓣ

[정혜영 샘의 추천 레시피] 아이들 간식으로, 특별한 날 선물로도 좋은 온 가족 디저트, "레몬마들렌"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레몬 마들렌!
빵 속에서 레몬의 신선한 향을 느낄 수 있다.

재료

달걀 180g, 버터 180g, 박력분 180g, 설탕 160g, 베이킹파우더 8g
레몬제스트 5g, 꿀 10g

베이킹 순서

1. 볼에 달걀·설탕·꿀을 넣고 거품기로 작은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가볍게 휘핑한다.
2. 체 친 박력분,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거품기로 섞는다.
3. 레몬제스트를 넣고 섞는다.
4. 녹인 버터를 넣고 거품기로 골고루 반죽을 섞는다.
5. 반죽을 냉장실에서 30분 이상 숙성한다.
6. 마들렌 틀에 80% 정도의 반죽을 채운다.
7. 180℃ 오븐에서 10분 정도 굽는다.

"같지만 다른 그림이 민화의 매력입니다"

민화 작가이자 초등 교사인 '빛나는 나현쌤'

글. 김나현 푸른초등학교 선생님

꼭 취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순간을 달래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리고 때론 취미가 새로운 재능이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제시하기도 한다. 오늘 만나볼 선생님도 학교와 육아에서 지쳤던 마음을 민화를 그리며 극복하다 현재 민화 작가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선생님이라는 본업 외 작가라는 점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민화'라는 우리나라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민화처럼 오묘한 매력이 있는 김나현 선생님의 '민화테라피'에 지금 초대한다.

1. 모(母)란도.
2. 민화테라피 강의.

녹록지 않았던 초임 교사 시절 나를 위로해준 '민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자리에 앉아볼까?"

교실에서 첫마디를 한 이후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그해 9월 초임 발령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교실에 발을 내디딘 첫날, 여러 번 담임 선생님이 바뀐 아이들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인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 또한 처음 아이들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버티듯 학교에 가던 어느 날, 같은 학년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는 것을 보게 됐다.

"우와, 선생님! 그림이 정말 예쁜데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사 동아리에서 배울 수 있어요. 2학기 초에 모집했는데 못 보셨구나!"

같은 학년 선생님께서 교사 동아리 활동으로 민화를 배우는 것을 보고 바로 민화 동아리에 가입했다. 민화를 배우며 교실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선생님들과 학급 운영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나누며 위로를 받고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었다. 발령 초기에 민화를 그리기 시작해 그 매력에 푹 빠져 다음 해에는 학생 민화동아리를 운영했다.

공모전에 참여하며 시작된 '민화 작가' 도전기

결혼 후 육아휴직을 하면서 좋아했던 민화를 더는 그릴 수 없었다. 즐겁게 민화를 그렸던 기억이 흐릿해져 갈 무렵 이사를 했고, 먼지가 가득 쌓인 화구를 발견했다. 더 그릴 일이 없을 것 같아 중고로 팔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화실이나 공방에 가서 민화를 다시 배우자니, 아이들이 많이 어려 그 또한 쉽지 않았다. 집이 감옥같이 느껴지던 어느 날, 맘카페에서 육아용품을 살펴보다가 '홈클래스' 공지 글을 보게 됐고,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면 집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민화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원데이 클래스를 이어가던 중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체험단 신청 및 공모전 참여 공지를 보았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 민화를 그릴 때 필요한 물감을 선물로 받았다. 체험단으로 받은 민화 재료로 2주 안에 공모전에 낼 작품을 완성해야 했다. 친정 식구와 남편이 두 아이를 돌봐준 덕분에 기한 내에 〈모(母)란도〉를 제출할 수 있었다. 결과 발표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한 공지에서 내 이름이 '대상'에 있는 것을 보고 식구들과 함께 기쁨과 고마움을 나누었다. 그렇게 민화 작가로의 도전이 시작됐다.

약력 김나현

- 푸른초등학교 교사
- 제1회 길상 동양화 공모전 대상
- 제1회 한국민화학교 공모전 우수상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 민화 동아리 운영 우수사례 표창장 수상
- 前 홈플러스 문화센터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민화테라피' 민화 강사,
- 다원이음터 마을동아리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민화테라피' 강사
- 저서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자존감 수업』, 『딸이 찾아주는 엄마의 그림책(민화편)』 기획

3

5

6

7

긴 육아 터널에서 나를 살린 민화, '민화테라피'

공모전에 수상한 이후에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민화 가르치는 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마음 맞는 몇 분과 '민화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마을동아리에 지원하게 됐다. '민화' 뒤에 '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긴 육아 터널에서 너덜너덜해진 자존감을 민화가 채워줬기 때문이었다. 이후 엄마가 되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글로 써서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자존감 수업』을 출간했고, 장마다 민화를 그려 삽화로 넣었다. 책의 이야기와 민화를 그린 경험을 엮어 '엄마의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부제로 '민화테라피' 강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SNS에 포스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색이나 댓글로 강의를 제안받는 일도 생겼다. 그렇게 '민화테라피'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면서 밑그림만 그려진 하얀 종이에 내가 좋아하는 색을 만들고, 붓질하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눴다. 민화를 처음 접한 분들도, 그림을 못 그린다는 분들도, 한 겹 한 겹 색을 올릴수록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림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즐거워했다.

소망과 바람이 담긴 그림, 민화

민화는 밑그림이 있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민화에 밑그림이 생기게 된 이유는 민화가 유행했던 조선 후기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민화는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유행했다.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왕과 양반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그림을 가지게 됐고, 수요가 많아지자 많은 그림이 필요해졌다. 이때부터 전문 화가가 아닌 사람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밑그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화는 형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표현이 자유분방하고 그

3. 동양화공모전 대상.
4,5. 민화테라피 강의.
6. 홈클래스민화 강의.
7. 민화동아리.

8. 홈클래스민화 강의.
9. 민화동아리.
10. 민화테라피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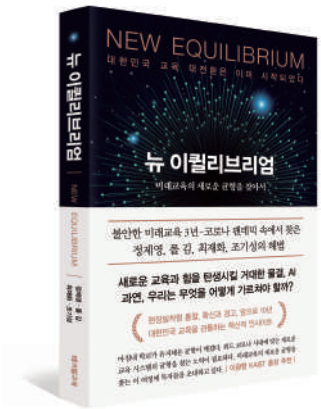
림의 구도 또한 파격적이다.

민화의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민화가 아름다웠던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민화 '까치 호랑이' 그림인 〈호작도〉는 새해 첫날, 나쁜 귀신은 호랑이가 물리치고 좋은 소식은 까치가 불러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문에 붙인 그림이다. 금실 좋은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꽃과 새 또는 나비를 그린 〈화조도〉를 신혼부부의 방에 붙이기도 했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공부하는 선비의 방에는 〈어변성룡도〉와 〈책가도〉를 걸어두었다. 유교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그려진 〈효제문자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문자도이다. 뭐니 뭐니 해도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도〉는 인기가 많아 지금도 많이 그린다.

모사에서 창작까지, 민화의 매력

옛 그림을 본떠 도안을 만들어 똑같은 밑그림으로 색칠만 하는 민화를 보고 사람들은 '창의력이 없는 그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민화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내리는 판단이다. 같은 본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을 그리는 개인의 '소망'과 '이야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색감이 달라 완성한 후에는 서로 다른 작품이 완성된다. 같지만 다른 것이 민화의 매력이다. 창의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역량을 융합해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모사'의 과정을 통해 차곡차곡 '민화'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창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화의 다양한 상징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 그 의미를 먼저 잘 알고, 조합하면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모전에 도전한 〈바람〉을 창작할 때도 왕을 의미하는 〈일월오봉도〉와 무릉도원을 그린 〈해학반도도〉의 상징과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바라는 왕의 마음을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 모양 안에 표현한 창작 민화가 바로 〈바람〉이다. 부채 자체로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 부채를 움직여야 비로소 바람이 생겨난다. 공모전에 도전해 보았던 '움직임'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나에게 '민화 작가'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을 만들어준 것 처럼 말이다.

창작민화 〈바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움직임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에이~ 내가 무슨!' 하는 마음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나의 부채'를 힘껏 흔들어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선물하고 싶다. Ⓣ



미래교육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뉴 이퀄리브리엄

저자. 정제영, 폴 김, 최재화, 조기성
출판사. 테크빌교육

코로나19로 모든 게 달라졌다. 국내 산업, 국제 교류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혼란과 변화가 찾아왔다. 그 혼란과 불안이 특히 막대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교육이다. 가시화된 숫자나 지표에 담기는 것보다 담기지 않는 게 더 많다. 학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2년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앞으로 1년 더, 예측 가능한 현실이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습 부진과 결손에 대한 불안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초학력, 교육의 양극화, 디지털 환경의 소외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AI,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같은 숱한 용어들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혼란이 극심할수록 더욱 사수해야 할 창과 방패는 무엇일까. "위기는 기회이고 현재의 혼란은 곧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지렛대"라는 발전적 지향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성장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교육의 중심 축은 무엇인가?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교육 분야 대표 지성 4인이 자신의 연구·개발 성취를 바탕으로 혜안을 내놓았다. 폴 김('AI 시대, 미래인재 역량과 교사의 역할', 'AI 교육 프로그램' 부문), 최재화('디지털 지식과 평가' 부문), 조기성('학교 현장의 실제' 부문), 그리고 정제영('인공지능과 교육정책' 부문)이 그들이다.

저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 변화를 '뉴 이퀄리브리엄'(New Equilibrium)이라 명명하고, 학교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의미와 미래교육에 대한 진보적 통찰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4차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에, 그리고 학교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 도입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중심 역할이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 책에서 위드 코로나 미래교육 해법을 만나 보자. 저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저경력 교사를 위한 교사생활 전방위·전 생애 가이드

초임교사 신호등

저자. 홍석희
출판사. 테크빌교육

성실한 예둘샘이 저경력 선생님들을 위해 보람찬 교직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 슬기로운 교직생활 전방위 백과사전을 펴냈다. 예둘샘은 15년 초등교사 근무 후, 지금은 장학사로 일하고 있다. 수업·교육 공모전 22회 입상,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올해의 스승상 포함 상장 및 표창 43개를 받은 성실한 교육자다.

이 책에는 154개의 소주제가 4개의 큰 주제 속에 담겨 있다. 4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첫 5년, 교직업무와 관계의 모든 것, 전문성 신장, 승진'이다. 거침없는 사이다 Q&A와 절대 주의사항 코너도 책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을 곁에 두면, 생애주기에 따른 준비사항들을 살짝 미리보기 하면서 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초임교사가 교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문성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승진을 고민하는 중견 교사가 되기까지 교직생활의 장면마다 꼭 필요하지만 딱히 물을 곳 없는 정보와 조언·권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성장과 보람으로 충만한 교직의 길을 손수 닦아나가는 데 밝은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튼튼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란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저자. 박재찬
그림. 김영주
출판사. 테크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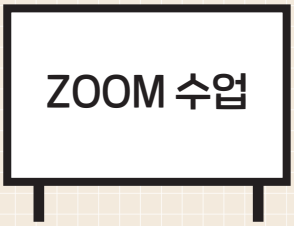
자존감의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를 허망하게 놓치지 않도록 박재찬 선생님이 글쓰기 질문 100개를 엮었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 나가는 힘, 자신을 타인보다 함부로 낮게 보지 않고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대인관계, 우울감이나 절망 같은 부정적 감정을 극복해가는 힘.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큰 기둥을 세우는 건 다름 아닌 자존감·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 자존감은 유아 시절에 아주 높지만, 집단생활이 시작되면 점차 낮아진다. 박재찬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긍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글쓰기 질문 100개를 개발했다. 평생 자존감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를 우리 아이들이 놓쳐 버리지 않도록, 하루 한 쪽 글쓰기 질문을 만나게 해주자.

글을 쓴 뒤에 친구나 형제자매와 돌려 읽으며 서로를 칭찬해줄 수 있도록 각 글 하단에 칭찬 메모 칸도 마련돼 있다.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경험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학교에 간 서니쌤

그림. 정은선
서울도성초등학교 선생님



SNS에서 '서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정은선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웹툰
'학교에 간 서니쌤'과 교실 기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 간 서니쌤

쌤동네/쌤모임 같이 시작해요!

쌤모임

선생님이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쌤모임!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을까요?

개설 수 505건

이용자 15,781건

쌤모임 주제 TOP3

1위 49% 온라인 수업 툴

2위 25% 학급 경영

3위 8% 교과 수업

※ 21년 1월 ~ 4월간
진행된 쌤모임 데이터 기준

쌤모임 제공 서비스 안내

모임 개설 편의

ZOOM 유료 계정 지원
다회차 모임 개설 가능

운영 서비스 지원

모임 알림 안내 발송
모임 운영 서비스 제공

각종 서류 제공

영수증, 수료증 자동 발급
강사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 제공

Tekville
테크빌교육(주)
2001~202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 여가친화기업

교사 · 학생 · 학부모를 연결하는 에듀테크 기업

20th ANNIVERSARY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는 **선생님**,
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도 수업에 참여해 친구들과 토론하는 **아이**,
입시 보다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부모**.
앞으로 테크빌교육이 에듀테크로 만들어 갈 더 나은 내일입니다.

테크빌교육(주) 문의 02-3442-7783

EDUTECH FRONTIER
Tekville 테크빌교육(주)
티처빌연수원
쌤동네
티처몰
키즈티처빌
즐거운학교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